

세종학교
2026년
문집
제39호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1972 Sae Jong Society of Detroit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교훈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자 세종 꿈나무



세종학교교가

조규홍 작사
박재훈 작곡

1. 대 - 한 의 어 린 이 들 이 - 곳 에 모 여 들 어 우 -
2. 너 - 와 나 손 을 잡 고 하 - 늘 움 지 고 이 어 한 -

라 를 결 - 리 내 어 문 - 화 오 천 년 기 리 빛 내 고 오 -
국 을 미 - 국 속 에 알 - 차 게 결 러 항 기 를 내 고 오 -

우 리 는 미 쉼 간 - 에 자 랑 스 런 세 - 종 의 얼 빛

내 리 세 종 학 교 빛 - 내 리 세 종 학 교

세종학교 교육목적

재미 한국인의 후예들로 하여금 성숙하고 창조적인 삶을 향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우리 겨레의 순수한 전통과 우수한 정신문화를 접하도록 교육시키며 이를 통하여 세종의 얼을 배우고 받아들여 전통 있는 민족의 긍지를 갖추도록 한다.

세종학교 각종행사

1. 학생 특별활동: 친구 클럽, K-rise 클럽, 세종뉴스레터클럽, 비즈공예 클럽을 통해 학생들은 취미에 맞는 클럽을 찾아 참여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 강연 및 연수회: 매 학기 교내 교사 연수회, 미시간 한국학교 협의회와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등 대외적인 강연과 연수회를 실시하고, 참가하여 보다 진보된 교육의 풍토를 세종학교 교사들의 수업 다양화에도 힘쓰고 있다.
3. 각종행사: 한국어 이야기 대회와 동요 부르기 대회, 글짓기 대회, 역사 문화 골든벨 퀴즈 등을 개최하여 미시간 주최의 여러 대회에서 각종 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교내에서도 다양한 대회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4. 태극마을 위문 공연: 1990년부터 새해 1월이면 새해 맞이 잔치를 하여 연장자들이 사시는 아파트인 태극 마을을 방문하여 웃어른께 세배를 드리고 위문 공연도 준비하여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5. 세종문집: 1986년부터 발간되어 해마다 학생 작품 등이 실려 나오고 15, 20, 25, 30, 50주년 특집호가 발간되었다.
6. 세종예술제: 1972년 6월부터 한 학년이 끝나는 6월에 학예 발표회식으로 학부모들을 모시고 세종예술제를 열고 있다.
7. 종, 졸업식 및 야유회: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수료증, 졸업증, 학습보고서, 상장을 수여하며 세종문집을 배부한다. 식후 야유회를 개최하며 학부모님을 비롯 하여 인근의 입양아 가족도 초대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인사말 6

토끼반 8

나비반 15

개나리반 23

매화반 31

난초반 38

무궁화반 44

장미반 50

해 반 56

솔 반 61

달 반 68

별 반 73

하늘반 83

종달새반 89

신입반 91

음악 96

미술 98

무용 100

태권도 102

사물놀이/난타 103

졸업생의 글 104

특별활동 108

대회수상자 114

사진모음 116

발행인: 박현우
 편집인: 노명숙
 발행일: 2026년 5월
 발행처: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시간을 건너 온 선물



교장 박현우

세종학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담임교사일 때 저에게 세종 문집 인사말은 학생들을 한 명씩 떠올리며 애정을 듬뿍 담아 쓰는 러브레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음악교사일 때의 세종 문집은 예전에 유행하던 싸이월드의 앨범처럼, 학생들과의 일 년을 돌아보는 사진첩과 같았습니다. 교장이라는 새로운 무게를 안고 세종 문집 인사말을 고민하다 보니 아이디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멋진 말로 잘 포장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결국 ‘나는 내 방식대로 써야겠다’ 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로 시작해 봅니다.

작년 봄, 고등학교를 졸업한 제 첫째 아이가 졸업을 며칠 앞두고 학교에서 무언가를 받아 왔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수업 시간에 썼던 ‘12학년이 된 나에게 보내는 편지’ 였습니다. 영어를 막 쓰기 시작하던 시기의 꼬마가 연필로 푹푹 눌러 쓴 그 편지를 학교에서 12년 동안 보관했다가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아이는 잠시나마 그 시절로 돌아간 듯, 그때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했던 작은 추억들을 하나씩 꺼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아이는 물론 저도 12년 전으로 되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울컥하기도 하고, 그 어떤 예능 프로그램보다 더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세종학교는 먼 훗날 지금의 학생들에게 어떤 선물을 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의 답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바로 세종 문집입니다.

매년 학생들의 작품과 선생님들의 글, 그리고 학교의 여러 행사들을 기록하는 세종 문집이야말로 학생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학부모님들에게도 소중한 선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문집을 몇 년 뒤 다시 펼쳐 보았을 때, “내가 이런 글을 썼었나?” 하고 웃을 수도 있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니!” “이때 이런 것도 배웠지” 하며 추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파일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각자 어린 시절의 열심과 추억을 가장 또렷하게 기억해주는 소중한 기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 문집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시간을 보관하는 작은 타임캡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후, 세종학교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 이 문집을 다시 찾아보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때 이 문집을 바라보는 마음은 또 어떨지 저 역시 궁금합니다. 그저 한 번 웃어도 좋고 잠깐 멈춰 그 시절을 떠올려 보아도 좋겠습니다. 그 기억 속 어딘가에 세종학교가 따뜻한 장면으로 남아 있다면, 교장으로서는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문집에는 또 어떤 이야기와 웃음이 담길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세종문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카고한국교육원
원장 송선진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가족 여러분, 세종문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종문집의 발간 소식을 들을 때마다 올해 문집에는 세종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문집을 펼쳐 한글로 또박또박 쓰여진 학생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됩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를 익히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까 짐작되어 때로는 마음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도 정말 수고했고 너무 장하다고,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를 보냅니다.

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여러분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특별한 인재들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가진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는 큰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큰 뜻을 받들어, 세종학교에 다니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세종대왕을 닮은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고, 자신의 꿈을 세계로 펼쳐나가기 바랍니다.

세종학교를 새롭게 맡아 훌륭한 리더십으로 이끌어 주고 계신 박현우 교장선생님, 학생들이 한 해 동안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덕에 지금의 세종학교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세종학교 홈페이지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열 권이 넘는 세종문집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세종학교가 그간 걸어온 발자취를 보여주는 값진 보물입니다. 여기에 담긴 모든 이들의 바람과 다짐이 다 이뤄지길 기원하며, 다시 한 번 세종문집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시카고한국교육원 원장 송선진



토끼반

교사 서종옥

사랑하는 토끼반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한 해 동안 세종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은 제게 참으로 큰 선물
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기대하는 마음으
로 학교에 들어서던 모습과 마주칠 때마다 환하게 웃어 주던 얼굴들이 지금도 여
전히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 웃음 속에서 아이들이 한글과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즐거운 놀이와 노래 속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
교사로서 더없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른 아침에 학교로 향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모님께서 어릴 적 불렀던 동요를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부르고,
부모님이 어릴 적 즐기던 놀이를 아이들이 웃음으로 이어 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진다는 한 부모님의 말씀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학교로 보내 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신 부모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이 소중한 시간이 가능했던 것은 모두 부모님들의 믿음과 기다
림 덕분이었습니다.

토끼반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배우며 보낸 모든 시간에 감사드리며, 우리 아이
들 모두가 앞으로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
이들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토끼반 친구들아, 선생님에게 와 주어서, 그리고 함께해 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너희는 언제나 선생님의 자랑이에요. 감사합니다.



세종학교 토끼반 김도윤



난 사자를
좋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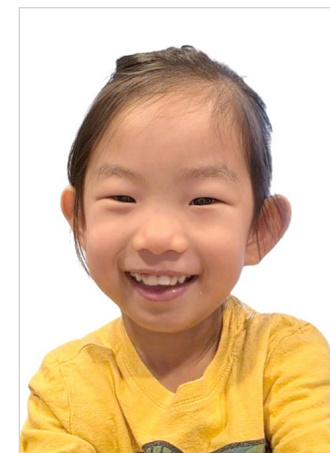
아빠가
기쁘



세종학교 토끼반 김동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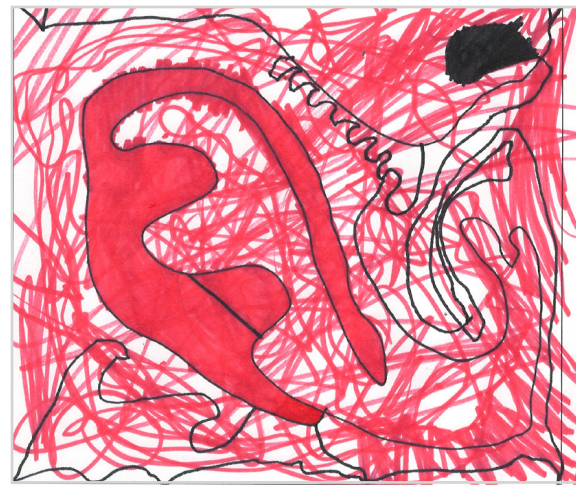
나는 토끼가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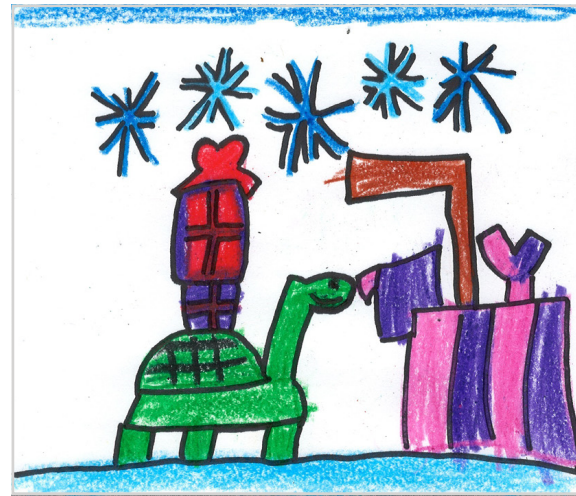
세종학교 토끼반 김아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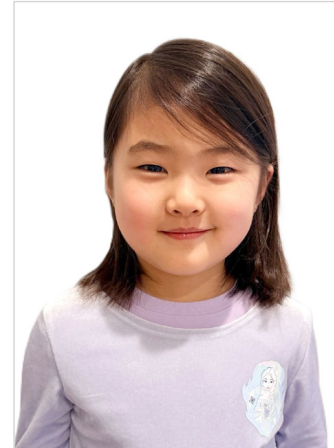
세종학교 토끼반 김재이



백사가 서쪽으로
가고 새남사지
이 불나다. 도마뱀
이 붉은 피우고 있습니다.



눈이 오는 날. 겨울이
간. 겨울. 겨울. 친구에게
버의 카메라로 선물받았어요.
마 보



세종학교 토끼반 김하은



딸기 쿠키와
딸기도넛입니다



세종학교 토끼반 김혜리



세종학교 토끼반 박대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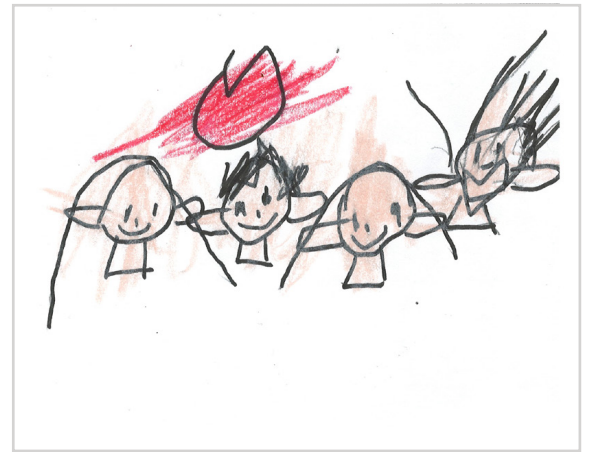
기린 목
길어요.



고양이를 좋아해요.



세종학교 토끼반 소미



우리들
좋아요.



세종학교 토끼반 손지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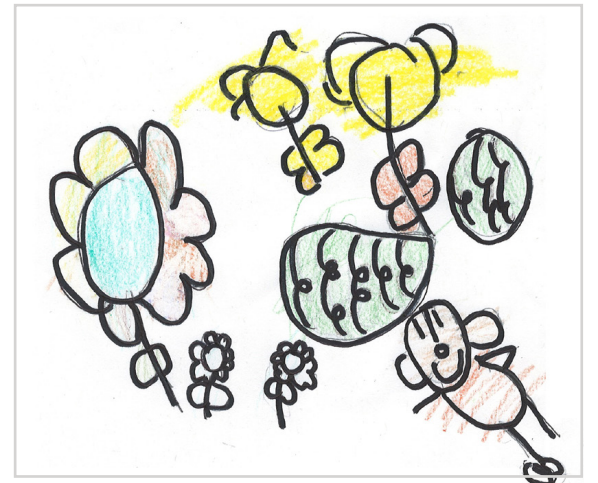
세종학교 토끼반 신애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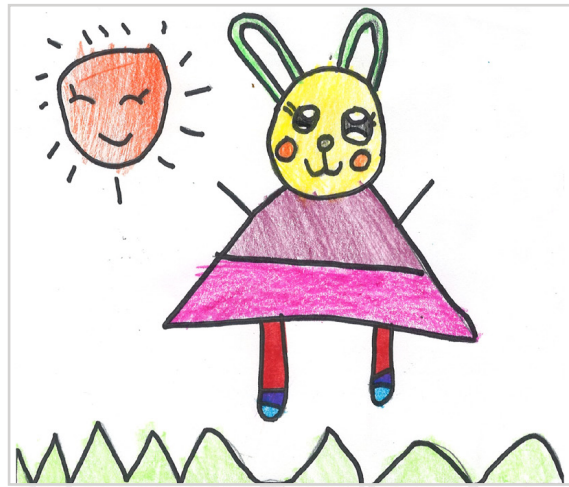
아이스
그림 워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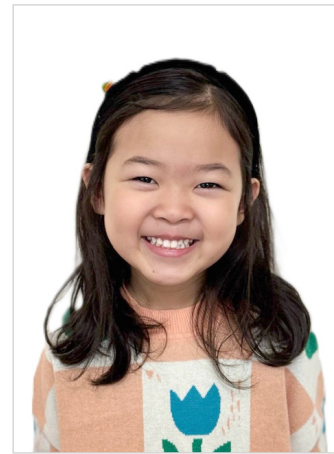
세종학교 토끼반 지수연



꽃 수박, 사람, 나비



토끼가 햇님을
친구로 만났어요



세종학교 토끼반 심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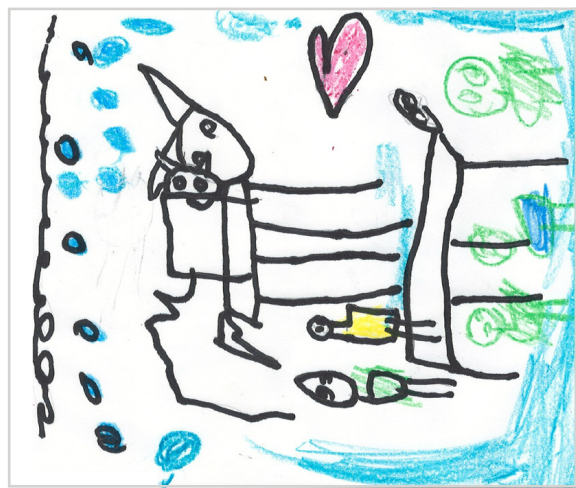
만형밥기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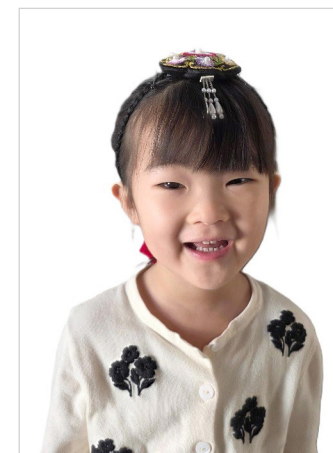
세종학교 토끼반 최을



세종학교 토끼반 임리안



북극곰과
우리가족



세종학교 토끼반 최아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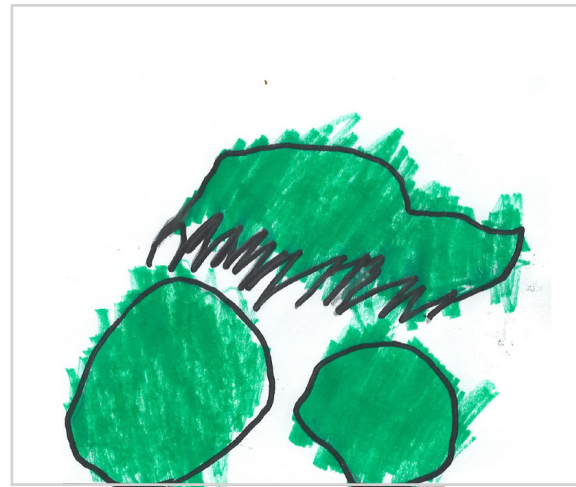
우리유니콘을
좋아해요



세종학교 토끼반 차세린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몬스터 트럭입니다



세종학교 토끼반 홍은택



나비

교사 한예원

나비반 친구들을 처음 만났던 새학기 첫날의 설레임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특수 교육을 전공하며 아이들을 만나는 일을 늘 사랑해왔지만, 한국어 부전공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게 된 것은 저에게도 무척 특별하고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음악과 태권도 수업을 마치고 간식 시간에 옹기종기 모여 저와 처음 이야기를 나누던 그날, 부모님께서 정성껏 준비해주신 음식을 의젓하게 먹으며 한국어로 재잘거리는 20명의 아이들을 보며 참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 또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한글학교를 다니며 자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미시간, 그리고 유럽에 이르기까지 여러 환경을 거치며 성장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 시간 덕분에 이중언어(Bilingual)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 실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도 한국에 계신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정서적으로 참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수업을 준비하며 고민도 많았습니다. 한글이 편한 친구와 영어가 더 익숙한 친구들이 섞여 있어, 누군가에게는 너무 어렵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쉬운 수업이 되지 않을까 늘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아침의 단잠을 포기하고 한국 문화와 한글을 배우러 오는 우리 나비반 친구들에게, 제가 직접 경험했던 그 소중한 가치들을 꼭 선물하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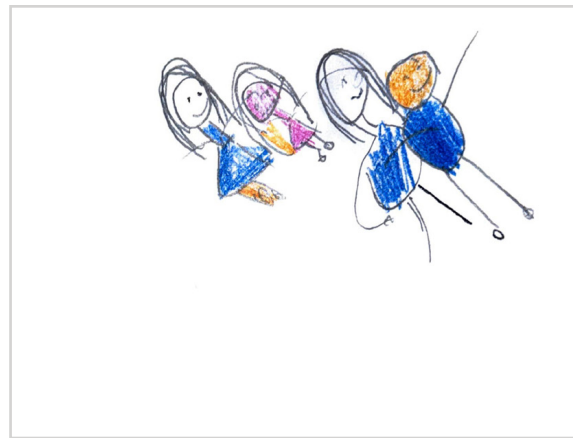
수업 시간마다 마주하는 아이들의 예상치 못한 대답, 순수한 표정, 솔직한 표현들은 저에게 오히려 더 큰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세종학교의 다양한 행사들—동요 대회부터 설날 세배, 김장까지—아이들과 함께하며, 이러한 경험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워주는 단단한 토양이 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나비반 친구들이 세종학교에서의 시간을 통해 한글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여, 훗날 저처럼 가족과 더 깊이 소통하고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하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귀한 주말마다 아이들을 믿고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마음껏 배워나갈 수 있도록 저 또한 사랑과 정성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세종학교 나비반 강이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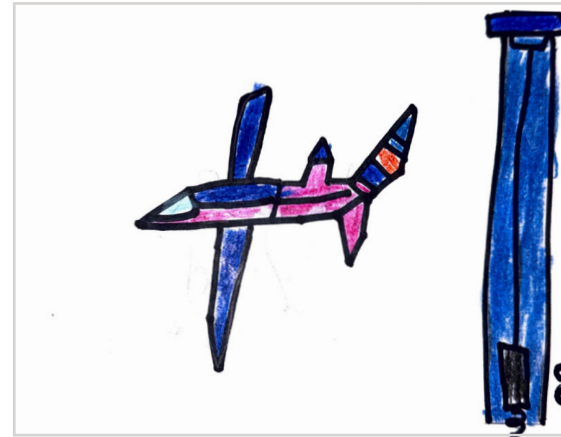
너무나 사랑 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 언니
우리는 강'스 피밀리



나는 엄마, 아빠, 오빠랑
쇼핑 가는 것을 좋아해요.



세종학교 나비반 고유나



나는 전투기를 좋아해요



세종학교 나비반 김주빈



세종학교 나비반 김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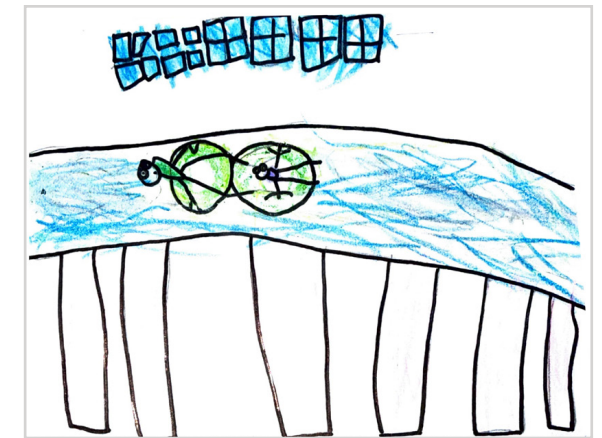
나는 제니를 좋아
해요



세종학교 나비반 김혜빈



나는 수영 하는거
좋아해요.



이그런데 비바람지 않게
왔어요. 중간에 물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만 자해요.



세종학교 나비반 김제인



세종학교 나비반 백나은



나는 우파루파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파루파를 내가
키우고 싶어요.



세종학교 나비반 예흔



엄마 사랑아 비
사랑해요 나동생은 사랑
해요



나는 고양이를 좋아해요.
그리고 바다에서 노는
것도 좋아해요.



세종학교 나비반 백나현



우리는 영화를 봤어요



세종학교 나비반 오연아



세종학교 나비반 손하운



나는 강아지랑 친구
좋아해요. 내가 강아지랑
우리가 많이야 그리고 나는
내가 강아지랑 친구랑
아해요



세종학교 나비반 이소운



처음으로 이가 빠졌어요.
혀로 이를 밀어서 빠졌어요.



세종학교 나비반 이지유



나는 수영이 제일
좋아요. 물속에서 노는거
재미있어요.



세종학교 나비반 최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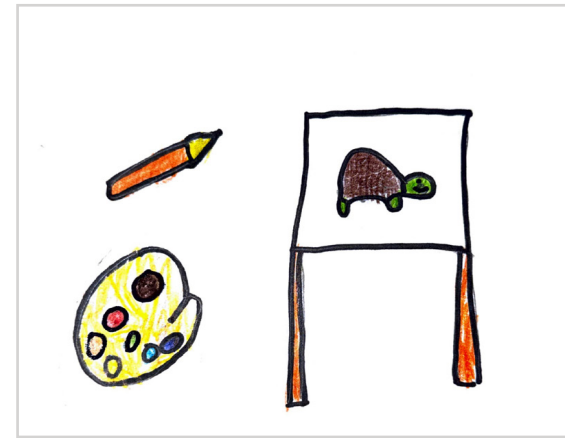
나는 밤이 좋아요
엄마가 밤이야



나는 누나랑 블록놀이
해요.



세종학교 나비반 이하준



나는 미술을 좋아해요



세종학교 나비반 하성



세종학교 나비반 최세린



나는 마이멜로디와
시나몬롤 좋아해요.



세종학교 나비반 황태성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요.



세종학교 나비반 윤세별



코코는 저가 사랑해요.
 토요일 사스가 서빙
 고시 품꺼어요.



개나리반

교사 이은주

수줍게 첫인사를 나누던 날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네요. 눈맞춤조차 부끄러워했던 우리 개나리반 친구들이, 이제는 저를 보면 달려와 손을 꼭 잡아주고 따뜻한 인사를 건넵니다.

낯설었던 서로의 존재가 이제는 함께 웃고 공부하는 단짝이 되었고, 그 시간 속에서 몰라보게 성장한 아이들의 모습이 선생님은 마냥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글은 때로 익숙하고, 때로는 생소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글을 더 즐겁게 가르쳐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저의 마음과, 매주 토요일 아침 단잠을 깨우고 달려온 아이들의 노력이 만나 참 예쁜 결실을 맺었습니다. 서툴렀던 글자가 문장이 되고, 그 속에 아이들의 자신감이 차오르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제게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개나리반에서 배운 한글이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만나는 열쇠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나눈 우정이 마음속에 따스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예쁜 아이들을 믿고 맡겨주신 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개나리반 친구들의 앞날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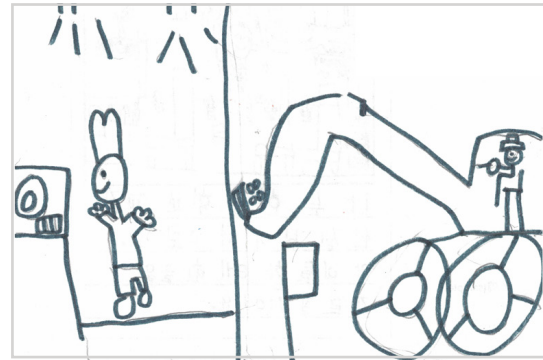




세종학교 개나리반 권나연



나는 곤충채집가가 되고 싶어요. 곤충을 연구하고 싶어요.



나는 자기빵사와 건설근로자가 되고 싶어요. 맛있는 빵과 맛있는 거물을 만들고 싶어요.



세종학교 개나리반 권오름



저는 아름다운 것을 그리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림을 본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세종학교 개나리반 김인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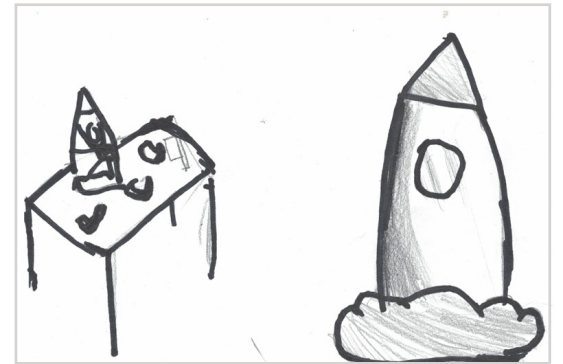
세종학교 개나리반 길유안



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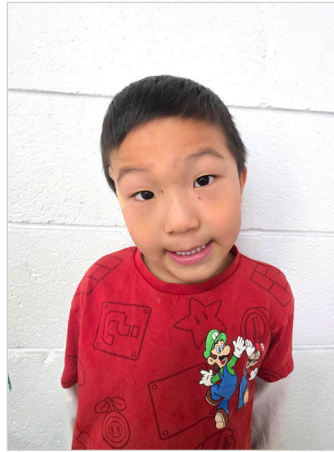
세종학교 개나리반 김용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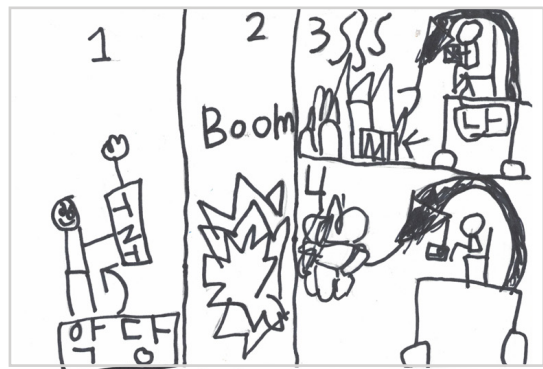
저는 크면 나무로 엔지니어링 하고 싶어요. 저는 수학이랑 과학이 좋아요. 쇠나 철보다 나무가 좋아요. 우주항공도 하고 싶어요.



저는 은행원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합니까요. 우리 할아버지처럼 멋진 은행원이 될래요!



세종학교 개나리반 김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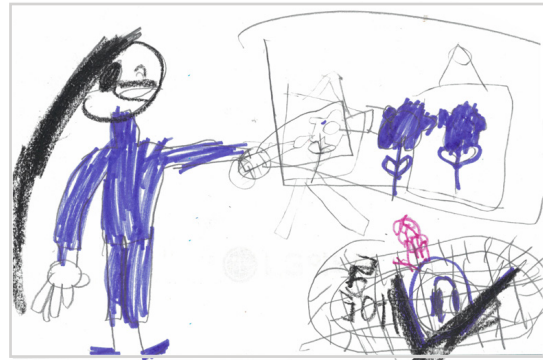
저는 경찰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지켜 주고
싶어요.



세종학교 개나리반 심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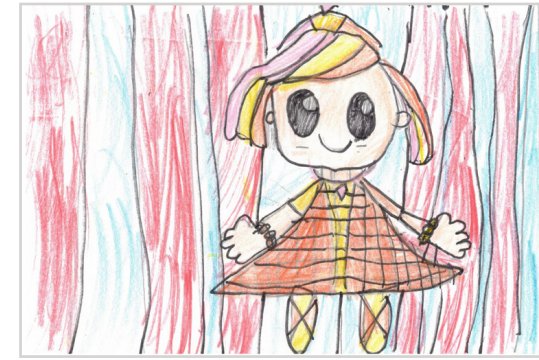
나는 카페 주인이
되고 싶어요. 맛있는 디저트
를 카페 에서 팔고 싶
어요.



나는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고 싶어요.



세종학교 개나리반 박이든



저는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요
외국으로 가고 여행
보이게 더 멋있어요.



세종학교 개나리반 유나



세종학교 개나리반 서다나



나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날마다 재미있을 거예요.



세종학교 개나리반 이은유



나의 장래희망은 건축가입니다.
건축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멋진 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저는 레고 만들기를 좋아하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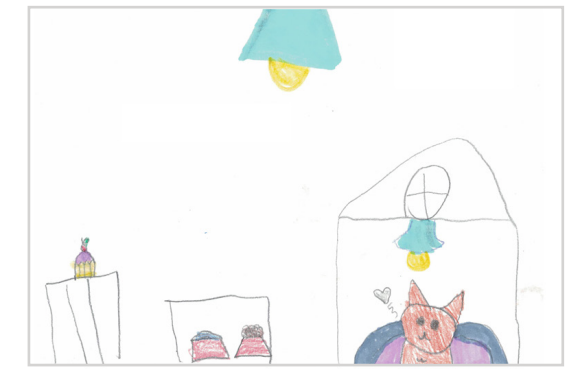
세종학교 개나리반 정태오



저는 어른이 되면
저 공사장에서
일할 거예요.



세종학교 개나리반 하나



나는 고양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고양이들과
함께 컵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나는 배의 선장이
되고 싶습디나,



세종학교 개나리반 지원



나는 제빵사 되고
싶어요.



세종학교 개나리반 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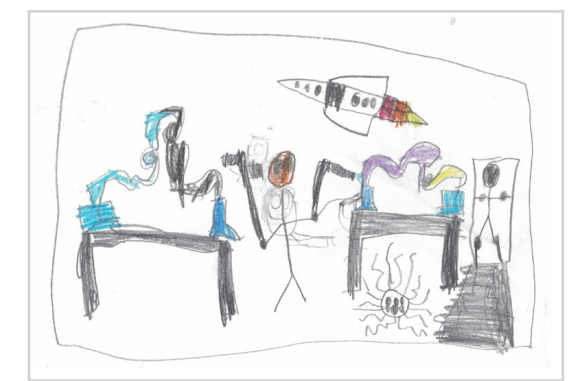
세종학교 개나리반 차윤우



나는 커서 축구선수가
될 거예요!



세종학교 개나리반 흥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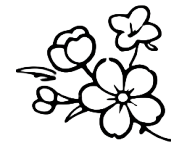
나는 우주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과학자가 되서
외계인을 조사할 거예요!



세종학교 개나리반 황윤호



나는 경찰관이 되고 싶
어 요. 나쁜사람들을
잡을 거에 요.



매화반

교사 이윤경

올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오는 긴 겨울이었습니다. 이제는 미시간에 봄이 오려고 합니다. 이 글을 적어 내려가다 보니, 어느덧 우리가 함께한 1년을 매듭지을 시간이 되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처음 매화반 아이들과 만나서 수줍게 인사 나누던 날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흘러 이 글을 쓰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아이들이 조금씩 몸도 마음도 성장하고, 더 깊이 생각하며, 배우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피곤하고 힘든 모습으로 등교는 하지만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한글이 어려워하는 옆 친구도 도와주는 아이들의 예쁜 마음에 선생님은 기쁩니다. 아이들에게 영어보다는 어려운 한글이지만 열심히 말하고 쓰고 읽으려고 하는 모습이 참 대견했습니다. 세종학교 매화반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들을 잊지 말고, 3학년이 되어서도 멋진 꿈을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아이들의 앞날을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아이들이 세종학교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학교 매화반 김무진



나는 강아지가 좋아요,
너무 귀여워서요, 키우고
싶어요. 같이 놀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동물은 토끼
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놀이터에서 만났다가 저를
안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세종학교 매화반 김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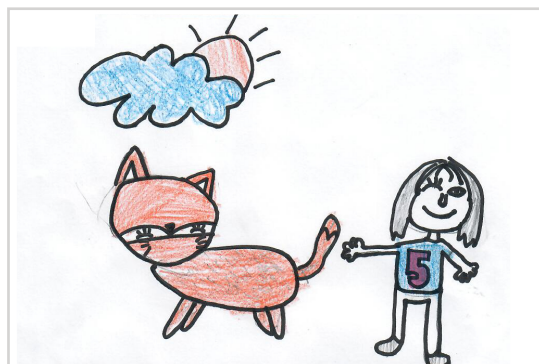
나는 거북이가 좋다
내 애완 동물이어서 그렇다.



세종학교 매화반 박노아



세종학교 난초반 김하윤



나는 여우를 좋아해요 여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우는 주황색 이어서 좋아
해요. 주황색을 좋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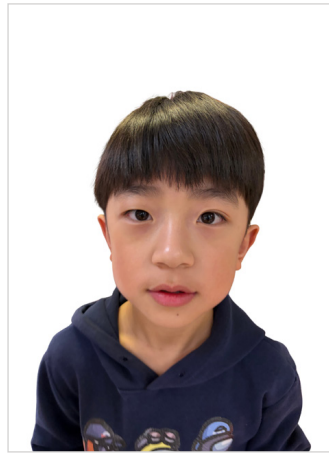
세종학교 난초반 박은비



토끼는 기어워요. 뛰는
게 웃겨요. 털이 부드러
요.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말이에요
말 타면 재미있어요
쓰다듬으면
기분이 좋아요



세종학교 대화반 백하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상어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세고 이빨도 뾰족해요.
그래서 상어를 좋아해요.



세종학교 대화반 손윤재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여우
입니다. 왜냐하면 여우는
사냥을 해요 그리고 귀여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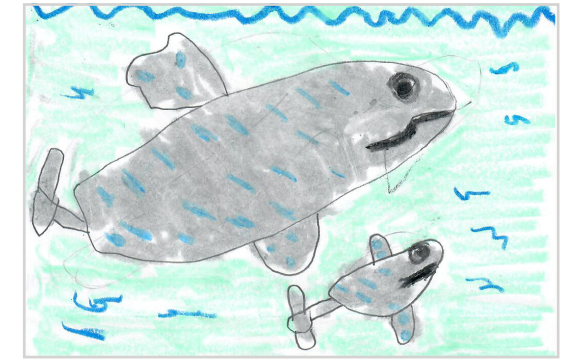
세종학교 대화반 이로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강아지입니다.
강아지는 부드러운 털이 있고, 나와 함께
뛰어노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강아지를 제일
좋아해요.♡



세종학교 대화반 이민혁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고래입니다. 왜냐하면 고래는 덩치가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래가 내는 소리는 무척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토끼입니다. 왜냐하면 토끼는
먹는 것이 귀엽고, 또한
토끼 발바닥도 귀엽다.
그리고 나는 토끼랑 닮
아서 토끼가 좋다.



세종학교 대화반 이선



세종학교 대화반 이시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조랑말,
고양이, 강아지, 토끼.♡



세종학교 매화반 이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여우입니다. 여우의 털은 매우 아름답고, 잘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우는 너무 귀엽습니다. 언젠가 꼭 보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은여우입니다. 은여우하면 산과 숲에서 무고로 먹고 살아요. 그리고 은여우는 너무 귀여워요. 나는 은여우를 친구 생일파티에서 쓰다듬었어요.



세종학교 매화반 캐서린 밴위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쥐입니다.



세종학교 매화반 황태양





난초반

교사 임열매

안녕하세요, 2025 - 2026학년도 난초반 담임교사 임열매입니다.

올해는 제가 난초반을 맡은 첫해이자, 세종학교와 인연을 맺은 첫해이기도 합니다. 세종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설렘과 걱정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해오던 저에게 새로운 아이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배움은 큰 설렘이었지만, 동시에 아이들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를 잘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준비한 만큼 아이들이 잘 따라와 준 날도 있었고, 때로는 선생인 제가 해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늘 함께해 주었기에, 세종학교에서의 첫해라는 여정을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글자를 하나씩 소리 내어 읽으며 서로를 기다려 주던 모습, 서툰 발음에도 끝까지 읽어 보겠다고 손을 들던 아이들의 모습은 제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장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신기한 독』이라는 책을 읽으며 ‘욕심’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쁜 욕심과 좋은 욕심이 무엇인지 묻자, 아이들은 앞다투어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욕심’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어리게만 느껴졌던 아이들 모두가 저마다 깊은 생각을 품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세종학교와 난초반과의 인연 또한 저에게는 꼭 이루고 싶었던 ‘좋은 욕심’이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스스로 공부할 때는 미처 알지 못했거나 잊고 지냈던 한글의 소중함과 한국어가 지닌 아름다운 말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배움의 순간을 난초반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더욱 풍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와 같은 설렘을 품고 다음 여정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 동안 난초반을 믿고 따뜻한 신뢰와 응원을 보내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보내주신 격려와 도움이 있었기에 아이들도, 저도 흔들림 없이 한 해를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종학교 난초반 고우석



나는 책 읽는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들이 좋고, 책을 읽으면 다음 내용들이 궁금해요.



저는 그림그리기를 좋아하고 잘합니다. 저는 자라면서 만화가 되고 싶어요. 저능력을 사육하면, 만화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학교 난초반 구하린



세종학교 난초반 구하울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나 중 에 하 린 이 에 게 먹 어 보 라 고 하 거 예 요. 나 중 에 하 린 이 장 나 강 흥 자 산 [대 음 식 무 만 들 어 주 거 예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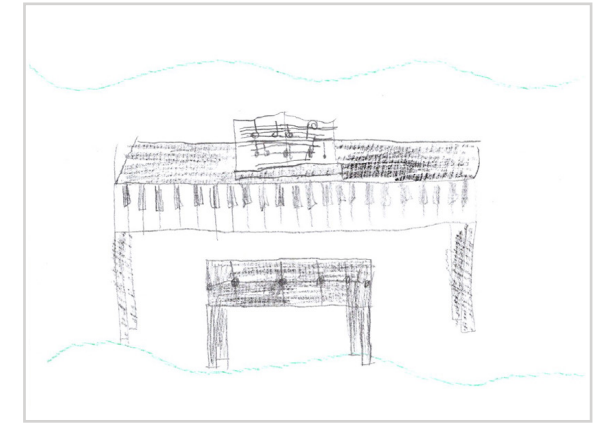
세종학교 난초반 김해나



저는 짐나 스틱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많으면 그냥 짐나
스틱을 해요.



세종학교 난초반 신윤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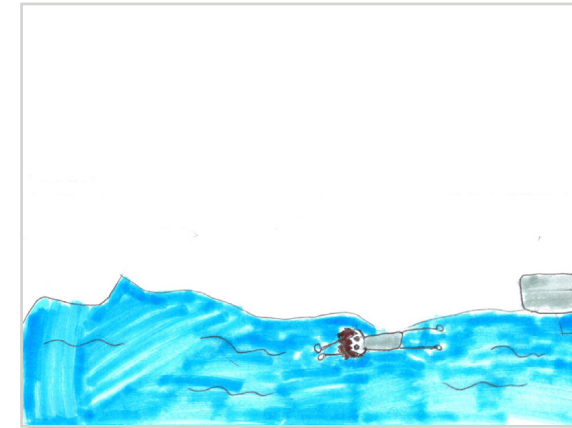
저는 피아노를 좋아해요. 그리고 악
보를 잘 읽고 피아노를 잘 쳐요. 피아
노 배우는 게 진짜 재미있어요. 제가
치고 싶은 음악을 배우면 더 재미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맹주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수영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하는 것은 만들기입니다. 나의
장래희망은 운동선수입니다.



세종학교 난초반 맹주은



내가 잘 하는 것은 수영입니다.
수영은 재미있고 할 때마다 행복합니다.
앞으로 배영을 제일 잘하고 싶습니다.



세종학교 난초반 아현우



세종학교 난초반 백한준



저는 게임을 잘해요. 할 때도 있지만
또게는 안하고 계속 계속 하면 더
잘해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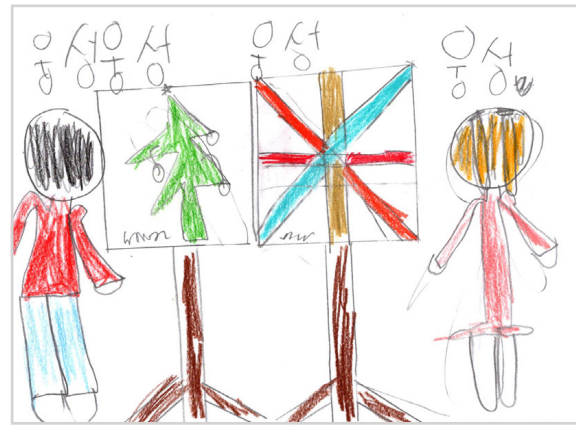
세종학교 난초반 오연수



안녕하세요 저는 연수입니다 내 생일은 4월 29일
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만들기입니다 내가 좋아
하는 것은 친구들입니다 마지막 나의 꿈은 켈리리스트
입니다. 관심 많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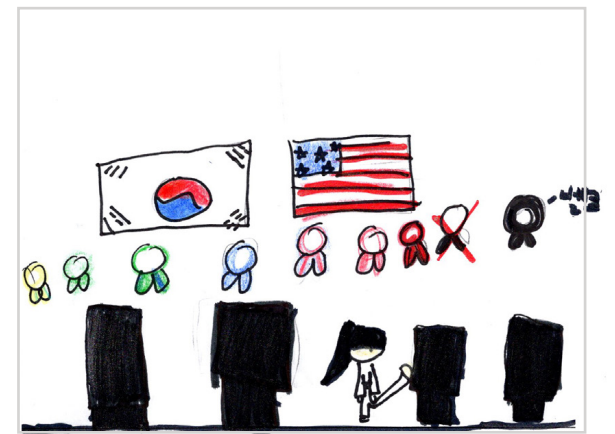
세종학교 난초반 임리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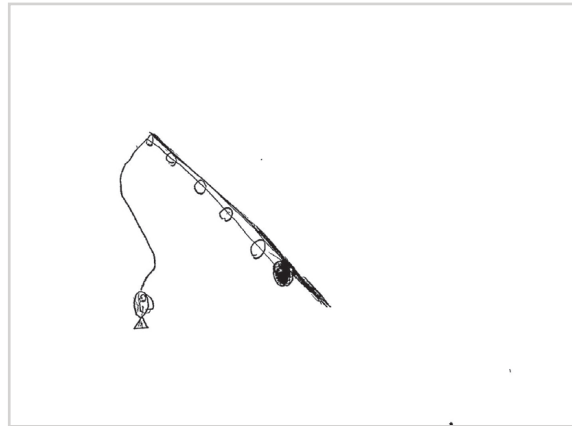
저는 크면 화가가 되고싶어요.
왜냐하면 예쁜 그림을 그릴수있어서
요.그래서 제그림이 아트뮤지엄에
전시가되어요. 정말 좋겠어요!



세종학교 난초반 황윤아



저는 태권도를 잘합니다.
저는 매주 열심히 배우고
연습을해요. 지금은 파란
색과 빨간색띠예요.



나는 매주 낚시하러 갑니다.
어른들은 큰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나도 커서 큰물고기를 잘
잡고 싶습니다.



세종학교 난초반 조민찬



나는 피아노를 치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음악을
좋아하고, 연주하는 것도 재미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가 너무
좋아요.



세종학교 난초반 최해나





무궁화반

교사 이숙경

언제나 새학년, 새학기는 설레이고 기대감에 차는 날입니다. 첫날 교실에 들어서면서 마주친 푹뭉툭하고 호기심 많은 눈들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를 반겨준 무궁화 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지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올해는 예전에 비해 조금은 적은 수의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에 저로서는 각각의 친구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소통할 수 있어서 더 행복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밝은 기운으로 수업시간을 활기차게 했던 민음이, 조용하지만 게임에서는 열정을 보이는 려준이, 항상 옆자리에서 앉아 서로 도우며 아껴 주는 성실한 하린이와 귀여운 예린이, 가끔 특 튀는 이야기로 웃음을 주는 이안이, 조금은 서투르도 한국어로 말하려고 노력하는 기특한 지아, 얌전하지만 항상 제자리에서 자신의 맡은 일을 해내는 시원이, 놀랄 만큼 빠르게 한국어 실력을 성장시킨 활달한 성격의 선우, 늦게 합류했지만 한국어 공부에 열정을 보여준 승찬이.

무궁화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글을 조금 더 섬세하고 훌륭하게 발전시킨 친구들도 있고, 처음으로 써보는 긴 글임에도 포기하지 않고 마무리해보며 한 단계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킨 친구들도 있습니다.

모든 친구들의 노력과 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더불어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서 조금은 힘들었을 역사/문화 시간을 마지막까지 잘 끝내준 친구들 참 자랑스럽습니다. 무궁화반 친구들! 삼국시대에 존재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찬란했던 옛 이야기들 기억해 주세요!



내 마음이 반짝이는 시간들

무궁화상 백하린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글을 쓰려니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 집니다. 저는 취미가 많은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책 읽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책을 많이 읽어 주셔서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야기에 빠져드는 시간은 참 포근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새 틈만 나면 책을 먹는 책벌레가 되었어요. 남 남. 책 속의 나라와 도시를 만나며 상상하는 시간은 저에게 작은 여행처럼 느껴집니다. 시카고에 대한 책을 읽은 뒤 실제로 시카고를 여행했을 때, 책에서 보았던 장소들이 눈 앞에 펼쳐져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세계의 역사를 공부하고 여행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하얀 도화지에 색으로 마음을 표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됩니다. 색을 섞어 새로운 색을 만들면서 제 마음도 정리됩니다. 오랜 시간 한 그림을 완성하면 성취감이 생깁니다. 이런 과정은 저를 성장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조용한 시간에 글을 쓰는 것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제 마음속 생각들이 하나씩 정리됩니다. 그러면서 작은 이야기들이 반짝이며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엄마는 제 글을 읽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가 좋아하는 글쓰기를 통해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제가 사랑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를 더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과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마법 같은 나의 운동

아름다운상 이민음

내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일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반마다 테니스를 치는 것이다. 테니스는 공을 칠 때마다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분이 반짝이는 운동이다.



나는 처음 레드볼 레벨에서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때는 공이 내 마음과 다르게 날아가거나 높이 쳐지지 않아서 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선생님이 격려해 주실 때마다 내 안에 자신감이 조금씩 피어 올랐다. 연습할 때는 준비 자세를 단단히 잡고 공이 오면 탁! 소리가 나게 친다. 공이 라켓에 정확히 맞는 순간 손 끝으로 전해지는 짜릿한 느낌은 정말 최고다.

처음에는 공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서 함께 운동하는 친구들과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공이 네트를 넘어가고 선생님과 랠리가 이어질 때마다 즐거움이 두배가 된다. 최근에 나는 오렌지볼 레벨로 올라가게 되었다. 공이 더 빠르게 튀어도 이제는 겁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빠른 공을 받아 칠 때마다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선생님께 칭찬을 들을 때면 내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며 행복으로 가득 찬다. 함께 배우는 친구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연습할 때면 시간이 훌쩍

나가 버린다.

테니스를 하면서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더 씩씩해졌다. 테니스는 내가 매주 화요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마법 같은 운동이다. 내 마음을 반짝이게 하고, 나를 한 뼘 더 성장시키는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나의 운동, 테니스!

우리 팀의 최고의 순간

고운상 길이안

지금도 하키는 어렵지만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며 골을 향해 달리 때 나는 정말 신나다.

잘하고 싶은데 이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가끔은 안 될 때도 있다. 스케이트를 빨리 타고 싶은데 넘어지면 화가 나고 내가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그게 안되면 또 화가 나기도 한다.

나는 더 이상 지기 싫어서 아빠와 매일 훈련을 시작했다. 조금씩 달라지는 나를 느낄 수 있었다. 스케이트가 빨라지고 드리블링도 좋아졌으며 몸도 더 강해진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퍽을 잡을 때 자신감이 생겼다.

지난 봄에 챔피언이었던 우리 팀은 지금 조금 지고 있지만 나도 점점 강해지고 있고 우리 팀 친구들 모두 이기고 싶은 마음으로 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우리 팀은 다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나는 매일 노력할 것이고, 팀 친구들과 함께 이겨내어 다시 최고의 순간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 꼭 NHL 선수가 되겠다.



피아노

예쁜상 김려준

저는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해요.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처음 피아노를 쳤을 때 소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엄마가 허락해 주셨고 그때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처음 배운 곡은 “Merry had a little lamb” 이었어요. 처음 쳤을 때는 조금 어려웠는데 더 연습을 많이 하니 쉬워졌어요.



저는 피아노 대회에 세번이나 나갔어요. 그 중에서 두번이나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을 받았을 때 엄마, 아빠, 그리고 피아노 선생님이 저를 축하해 주셨어요. 저는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작년 겨울에 학교에서도 피아노를 잘 친다고 “Parent appreciation breakfast” 에 초대 받았어요. 저는 거기에서 곡 “Angelfish” 를 쳤어요. 그 곡을 다 쳤을 때 선생님이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저는 피아노 연주회도 많이 가 봤어요. 피아노 연주회는 11월~12월쯤에 해요. 저는 피아노 연주회에서 피아노 노래를 들었고, 저도 피아노를 쳤어요. 저의 가족은 피아노 연주회 뒤에 한식을 먹거나 아니면 저한테 돈을 줘요. 저는 피아노를 잘 치는데 더욱 잘치고 싶어요.

나의 꿈 - 드림 이야기

강예린

나는 드림 치는 것을 좋아한다. 드림을 치면 엄청 신난다. 나는 집에서 40분 연습한다. 앞으로 드림을 열심히 해서 잘치고 싶다. 얼마 전에 엄마 그리고 아빠가 드림을 사줬다. 이번에 콘서트에도 나간다. 첫번째 해서 떨리지만 잘 할 수 있다. 엄마가 치라고 해서 시작했지만 하다 보니 너무 재미있다. 처음에는 어려워서 하기 싫었는데 포기하지 않았더니 이제는 쉽고 나의 꿈이 되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이다. 드림은 재미있다.



내가 좋아하는 일

김시원

나는 수영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라이프타임 수영팀에 가입하여 매일 수영 훈련을 하고 있다. 내가 수영을 좋아하는 첫번째 이유는 수영팀 코치 때문이다. 그는 매우 친절하다. 두번째 이유는 다양한 방법의 훈련이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훈련법은 스트로크 횡수 세기이며 나의 최고 기록은 17번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수영을 좋아하는 이유는 좋

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번 기록 측정날에 2등을 했다. 앞으로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연습하여 다음에는 꼭 일등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

안선우

내 이름은 안선우. 강아지는 두마리 있어요. 누나, 아빠하고 엄마 다 사랑해요. 교회는 제일사랑교회예요. 크리스마스를 좋아해요. 라체스터에 살아요. 강아지 이름은 두부하고 태디. 나는 피아노를 해요. 드림을 해요. 주원이는 내 교회에서 만났어요. 제일 좋아하는 게임은 키랜시로이예요. 학교에서 다리를 다쳤어요. K-pop을 좋아해요. 나는 아홉살이에요. 고기를 좋아해요. 태그를 좋아해요. 공을 좋아해요. 과학을 좋아해요. 야구 좋아해요. 나는 먹는 것을 좋아해요. 겨울을 좋아해요. 누나하고 쇼핑을 좋아해요. 나는 내 친구들을 좋아해요. 나는 Urban Air를 좋아해요. 재미있어서요. 나는 대박 먹는 것을 좋아해요. 내 집을 좋아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최지아

저는 예술이 창의적이고 때로는 어수선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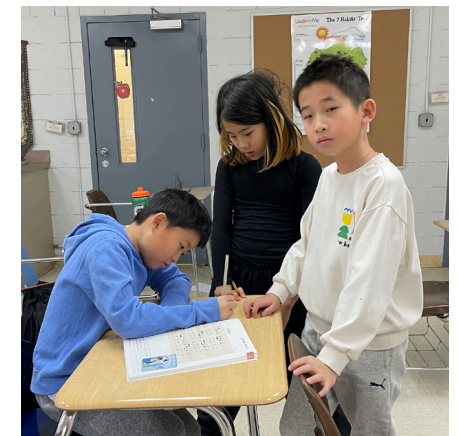
만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제가 예술을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매우 창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멋진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고, 때로는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수채화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립니다. 종이를 자르고, 색칠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지저분하고 저는 지저분한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페인트가 사방에 튀고 종이들이 여기 저기 흩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결과물이 정말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정말 열심히 작업하다 보면 결과물이 엉망이 되죠. 때로는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도해 봐야죠. 그럼 당신의 작품이 아주 예쁠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예술을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이승찬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찬입니다. 저는 웨스트 블룸필드에 살고, 4학년입니다. 스포츠도 많이 해요. 수영, 피클볼, 골프, 야구, 축구를 합니다.



장미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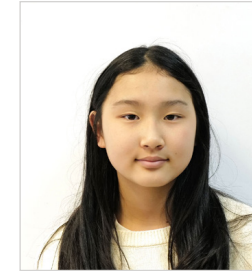
교사 윤희란

올 해 장미반은 지난 해보다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 차이가 심해서 학생들의 개별적인 성취도와 특성을 파악하고 각자에게 알맞는 과제를 주면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한 해동안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게임을 수업 내용에 맞추어 적절하게 활용하였고 모둠 활동을 통하여 자신있게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적극적인 소통과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길 바랍니다. 한국어 실력이 뛰어난 수빈이와 하준이는 항상 수업 분위기를 활기차게 이끌었고 모둠 활동을 할 때마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세종 글짓기 대회에서 “장미상”을 수상한 혜서는 차분하고 진지한 자세로 모든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지민이는 수줍음이 많아서 먼저 나서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은 주원이와 수업 태도가 모범적인 려환이는 주어진 과제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호기심이 많아서 질문을 잘 하는 성엽이는 밝고 쾌활한 모습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마음이 따뜻한 태양이는 숙제를 열심히 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잘 도와주어서 기특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고 미소가 매력적인 여름이는 자신있게 발표를 잘 했고 이번 학기에 새로 등록한 라일이는 금세 적응을 해서 시간이 갈수록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장미반에서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이 학생들에게 즐겁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만들기

장미상 최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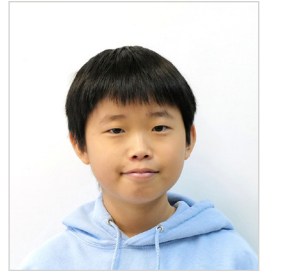
나는 무엇을 만드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만들기를 하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손으로 만들 수 있어서 재미있어요. 요리를 할 때는 채소들이 맛있는 반찬이나 국으로 변하는게 신기해요. 과학 실험을 할 때는 작은 변화가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해서 계속 하게 돼요. 내가 슬라임을 만들었는데 색도 바뀌고 촉감도 말랑말랑해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실험이 잘 되면 내가 진짜 과학자가 된 기분이예요. 나는 비디오도 만들어 보았어요.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이어 붙이면 새로운 이야기가 생겨나요. 완성된 영상을 보면 내가 멋진 감독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만들었던 것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작곡하는 것이었어요. 예쁜 소리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피아노 선생님께서 멜로디를 만들려면 화음을 공부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완성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만들기는 때로 어렵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실패를 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래서 실패는 사실 실패가 아니예요. 더 멋진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만들기는 나를 즐겁게 하고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 줘요. 그래서 나는 만들기가 정말 좋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피아노

아름다운상 김려환



저는 피아노가 제일 좋은 악기 같아요. 제가 피아노를 좋아하는 세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번째 이유는 다양한 소리가 나기 때문이에요. 피아노에는 건반이 총 88개나 있다고 해요. 가운데 있는 건반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소리가 낮아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리가 높아져요. 다양한 소리들이 묵직한 느낌부터 경쾌한 느낌까지 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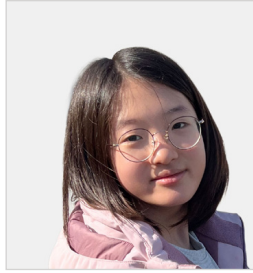
두번째 이유는 처음에 피아노를 배울 때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주 쉬운 악보부터 시작해서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악보대로 피아노를 쳤을 때 예쁜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이 신기했어요. 그 때 제가 아는 노래들을 많이 쳐보았어요.

세번째 이유는 피아노 대회에 나가면 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4개월동안 연습해서 피아노 대회에 나갔는데 1등을 했어요. 열심히 연습해서 상을 받으니까 뿌듯하고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내년에도 대회에 나가서 1등을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피아노를 한 번 배워보세요. 정말 재미있을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

고운상 박수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림을 많이 그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5학년이 되어서 숙제도 늘어나고 공부량도 많아져서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나 주말에 그림을 그립니다. 가끔 문체집에도 낙서를 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도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짜증났던 감정이 없어지고 저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취미는 게임을 하고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입니다. 주로 컴퓨터로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사람들이 게임하는 영상을 많이 봐서 저도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게임하고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주말에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영상도 보통 한 달에 한 번 올릴까 말까 합니다. 그 때 저는 취미에 더 가까워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고양이입니다. 1학년 때까지만해도 제가 좋아하는 동물은 드래곤이나 유니콘같은 상상의 존재들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전에 말했듯이 고양이나 강아지같은 현실적인 동물들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웬지 점점 자라면서 상상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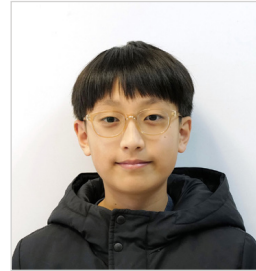
제 결론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는 게임

한 것을 편집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것과 그림 그리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잘하지 못하고 상상의 동물을 좋아했던 1학년때와는 다르게 고양이를 좋아하게 되었으므로 좋아하는 것은 계속 바뀌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비행기 만들기

예쁜상 손하준

제 취미는 비행기 만들기입니다. 저는 미국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종이를 들고 나가서 비행기나 전투기를 만듭니다. 제가 종이로 만든 모든 비행기들은 항상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투기는 “F-18 Super Hornet”입니다. 또한 미국학교에서 슬라이드쇼를 만들 때 저는 Delta 항공, Airbus A 380을 비행기 주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비행기를 만들 때 보통 입체 단면으로 선택을 합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코부분을 만들기 어렵지만 항상 제 친구가 만드는 걸 도와줍니다.



저는 “F-18 Super Hornet” “B2 Bomber” 그리고 “F-15” 등등의 전투기를 접었습니다. 저랑 제 친구는 많은 비행기의 종류를 알고 있고 요즘은 비행기보다 전투기를 더 많이 만듭니다. 전투기를 접는 것은 항상 흥미진진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다른 전투기를 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춥고 손이 시려서 전투기를 못만들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우리는 같이 전투기나 비행기를 점심시간에 다시 만들 것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예쁜상 박태양

나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친구는 김성협이에요. 성협이는 나와 같이 세종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서 같이 놀아요. 성협이는 재미있는 농담과 웃긴 이야기를 많이 해서 같이 있을 때 너무 즐거워요. 우리는 테니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함께 하면서 놀아요.



성협이는 나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우리는 같은 한국 사람이고 같은 언어를 쓸 수 있어요. 우리는 장난을 좋아하고 수영을 좋아하고 스시도 좋아해요. 그런데 다른 점도 있어요. 성협이는 누나가 있고 나는 외동이에요. 성협이는 안경을 쓰고 나는 안경을 쓰지 않아요. 성협이는 야채를 싫어하고 나는 야채를 좋아해요.

우리는 가끔 싸우기도 하고 서로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지만 성협이는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

김성협

나는 라면을 좋아해요. 내가 4살 때 라면을 처음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어요. 라면은 자극적이고 매워요. 그래서 더 맛있어요. 나는 라면이 뜨거워서 얼음을 넣어서 먹어요. 한 번은 라면을 먹을 때 스프가 눈에 들어가서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조심하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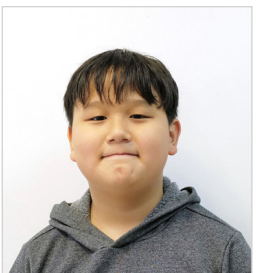


보통은 엄마가 냄비에 물을 담아서 가스불에 라면을 끓여줘요. 요리할 때 불을 켜기 때문에 나는 라면을 끓일 수 없어요. 대신 컵라면을 끓여 먹어요. 컵라면을 만들려면 먼저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 라면이랑 스프를 넣고 기다리면 끝나요. 라면은 맛있지만 건강에 안 좋아요. 그래서 나는 라면을 많이 먹지 않을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탁구

김주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생김새가 달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다르지요. 가끔씩 그것을 할 때 걱정, 스트레스, 불안함이 찾아와요. 하지만 저는 탁구를 너무 너무 좋아해서 그런 생각이 와도 포기를 안할거예요. 제가 처음 탁구를 시



작했을 때 잘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3-4개월 뒤에는 탁구를 잘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탁구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고 매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싶게 되었어요.

저는 주세혁 선수가 탁구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탁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탁구를 일주일에 두 번 칩니다. 하지만 제가 가끔씩 친구네 집에 갈 때 그 친구집에서 탁구를 쳐요. 저는 어른이 되면 탁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만약에 탁구를 그만두면 탁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어린이에게 가르치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탁구를 가장 좋아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

김지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육상입니다. 육상은 정신과 신체에 많은 이점을 주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이 스포츠는 정신적으로는 규율을 배우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단거리 달리기로 시작해서 꾸준히 노력하면 장거리 달리기에도 도전할 수 있고 1년정도 지나면 단거리와 장거리를 모두 능숙하게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육상은 신체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달리다 보면 근육과 뼈가 강화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건강한 생활방식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육상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농구

이래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농구를 하는거예요. 농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재미있고 쉽기 때문이에요. 농구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멋진 스포츠예요. 농구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것은 친구랑 농구하는 것을 봤는데 그 때 갑자기 농구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계속 농구를 하게 되었고 농구를 잘하게 되었어요. 아빠가 농구하는 것을 도와주셨고 농구 캠프도 가게 돼서 농구를 더 잘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농구가 너무 소중한 농구를 더 잘하고 싶어요.



해주는데 저는 제 그림체가 좋아서 가끔 AI를 쓰고 제가 주로 그림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보컬 라이드나 일본노래 애니미켓 둘 다 똑같고 종이로 그림을 더 그림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랑 하이라이터 표현을 잘하고 종이가 좋아서 종이로 자주 그림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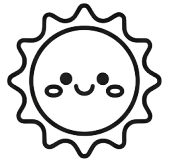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

정여름

제 취미중에 빠질 수 없는게 있습니다. 한 번 놓으면 수업시간에도 맨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림은 옛날부터 해서 7년이 거의 다가옵니다. 그중에서 태블릿으로 제일 많이

그리는데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파츠도 따로 나눠야해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자주 안만들고 그냥 그림만 그리는게 더 쉽습니다. 요즘은 AI가 다





해반

교사 김정화

토요일 아침, 일주일의 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이 시간은 저에게 교육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평일에는 영어가 가장 익숙한 언어인 아이들이, 주말이 되면 한국어 교재를 펼치고 두 언어와 두 문화의 경계에서 순간을 마주하게 되기 때 문입니다. 잠을 조금 더 잘 수도 있는 주말임에도, 교재와 숙제, 도시락을 챙겨 세 중학교로 들어오는 아이들의 모습에는 특별한 힘이 느껴집니다.

미국에서 자라는 아메리칸 코리안 아이들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제2언어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사고를 확장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제2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어휘와 문법을 익히는 것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을 갖게 되는 일입니다.

언어는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고,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며,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 믿음 속에서, 해반 수업은 한국어 능력 향상에만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언어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가치들을 함께 이해하며, 아이들이 자신이 서 있는 자리와 뿌리를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교실은 정답을 빠르게 찾는 공간이 아니라, 두 언어와 두 문화 사이에서 생각을 확장하고 질문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토요일마다 이어진 교실 속 대화와 웃음, 그리고 때로는 망설이던 순간 들까지도 아이들에게는 모두 소중한 성장의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성실하게 참여해 준 해반 친구들, 그리고 늘 따뜻한 관심으로 아이들을 응원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곧 7학년이 될 해반 친구들이 앞으로 한국어와 영어, 두 언어를 발판 삼아 더 넓은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의 꿈

해상 최성우

저의 꿈은 테니스 선수입니다. 테니스 선수들은 멋있고, 생활이 항상 재미있어 보입니다. 테니스 선수들은 공이 빠르고, 키가 큼니다. 저는 테니스를 삼년 전부터 쳐왔고, 지금도 치고 있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테니스는 팀 스포츠가 아니어서 좋아합니다. 팀 스포츠는 팀이 못해서 질수도 있고, 제가 못해서 미안할 수도 있습니다. 테니스 공을 칠 때면 기분이 좋습니다. 공을 칠때 소리가 크고 좋아서 테니스를 칩니다.



저는 경기에 나갈때 마다 긴장이 되어서 출전을 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테니스 선수가 되려면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테니스 클럽에 가서 연습을 합니다. 클럽에서 친구들과 같이 테니스도 치고, 운동도 합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클럽에 가서 개인 레슨을 받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시간이 남을 때 형이랑 같이 테니스를 치러 가기도 해요. 제가 처음에는 재미로만 쳤었지만 레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레슨을 받은 지 이년 정도가 되었고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어요. 저희 형은 지금 십학년이고 고등학교 테니스 팀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팀에서는 다른 학교들이랑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10월에 최종 경기를 해요. 올해에는 형의 학교가 5등을 했어요. 저희 집에는 공을 치면 공이 다시 돌아오는

기계가 있어요.그것으로 집에서 테니스를 칠 수 있어요.

저는 UTR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 앱에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테니스를 잘 치는지 알 수 있어요. 제 UTR은 2.5이고, 제 형은 5.2 이에요.

여기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야닉 시너입니다. 그는 UTR이 16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테니스 선수 역시 야닉 시너입니다. 이 선수는 키가 크고, 공을 치면 엄청 빠르게 나갑니다.

저의 꿈은 테니스 선수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꿈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나의 꿈

고운상 유가현

나의 꿈은 엔지니어나 발명가, 또는 선생님이 되는 것 이에요. 제가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이유는 수학을 잘하고, 문제를 잘 풀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빠도 엔지니어여서 저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지니어는 돈도 잘 벌기 때문에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제가 발명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물건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물건을 만드는 것도 있고, 재미로 물건을 만들어 본 적도 있

어요. 한번은 박스로 텔레비전을 재미로 만들어 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연필깎기가 없어서 하나 만들어 본 적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발명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참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유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친구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피아노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 할 거예요.

나의 꿈

아름다운상 조수민

많은 사람들의 장래희망은 의사입니다. 간호사, 안과, 피부과 등등의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저는 외상외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외상외과 의사가 된다면 잠을 규칙적으로 못자고 수술만 거의 하루종일 해야 해서 전 세계 의사 중에서 외상외과 의사는 1%도 안된대요! 예전에 미술 선생님께서 한국에는 외상외과 의사가 부족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 때는 외상외과 의사가 뭔지도 몰랐고, 꿈에 대한 관심도 없어서 그냥 넘겼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없게 제가 외상외과 의사가 되

어서 돕고 싶어요.

외상외과 의사가 되고 싶었던 계기는 네이버 웹툰 “중증외상센터 : 골든아워” 라는 것을 봤는데 정말 재미있어서 계속 보다가 내가 외상외과 의사가 되면 좋을것 같아서 그때부터 외상외과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외상외과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서 되고 싶어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건강해도 사고가 나면 사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외상외과 의사가 될 거예요.

나의 꿈

예쁜상 김지후

저의 꿈은 축구선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다른 스포츠에도 도전해 보고자 축구를 그만두었습니다. 먼저 축구는 팀 스포츠입니다. 팀 스포츠는 팀워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있습니다.



또한 팀으로 활동하다 보면 친구를 사귄수도 있으며, 혼자하는 운동보다 팀으로 함께하는 운동이 훨씬 더 즐겁습니다.

저는 축구를 그만두고, 1년 동안은 농구에도 도전해 보았으나, 그것은 나에게 잘 맞지 않았고 큰 흥미도 느끼지 못했어요. 농구는 나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스포츠였

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한 친구가 나를 축구 경기에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친구가 계속 같이 해보라고 권유했고, 결국 나는 축구가 다시 재미있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멋진 축구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나의 꿈

박서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들을 좋아해서 동물원과 Petting Zoo에 자주 갔습니다.



동물원에서 많은 동물들을 보고, Petting Zoo에서 동물들을 만질 때마다 행복했어요.

동물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제 꿈은 수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고양이 이름은 폴입니다. 제가 3살 때 동물보호소에 토끼를 사러 갔었는데 까망 털과 노란 눈을 가진 고양이가 더 귀여워서 폴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부터 폴이랑 같이 놀고, 폴을 키우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수의사가 된다면 좋아하는 동물들을 돌보며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폴과 함께 잠깐동안 거북이를 키운적이

있어요. 2019년 여름에 캠핑을 가서 호수에서 낚시를 하다가 거북이를 잡았습니다. 그 거북이를 집으로 데려와 코아라고 불렀어요. 코아는 야생동물입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의 먹이를 주면 많이 먹지 않았어요. 그것보다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작은 물고기를 가끔씩 잡아 밥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나는 코아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가 없어서 야생으로 다시 보내야했어요.

제가 대학에 가면 야생동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수의사가 된다면 도움이 필요하거나 다친 동물들을 돌봐주고 싶어요. 그리고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아픈 이유와 치료 방법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과학에 관한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동물들을 도와주기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많이 할 것입니다.





솔반

교사 송주희

사랑하는 솔 반 친구들과 함께
봄이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문집을 발간하며.....
솔 반 친구들과 함께 매주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배움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마음의 성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저는 우리 솔 반 친구들이 한 명 한 명이 가진 빛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빛이 더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옆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싶습니다.
세종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속에서 정체성의 뿌리를 확인하고 세상을 넓게 보는 힘의 바탕이 되기를 기원하며, 두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한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때로는 천천히 가더라도 나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토요일 늦잠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이중언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모습 또한 한국인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의 작은 대화와 책 한 권을 함께 하는 시간, 꾸준히 세종학교에 보내 주시는 정성과 관심이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중언어로 솔 반 친구들이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그 힘이 미래의 가능성이 되고, 자신감의 근원이 될 것을 확신 합니다. 지금의 노력이 쌓여 먼 훗날 큰 자산이 될 것을 믿으며, 앞으로도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미시간의 사계절

솔상 이레나

저는 미시간에서 살기 전에 텍사스에서 3년동안 살았어요. 어렸기 때문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부모님께서 많이 더웠다고 말씀하셨어요. 텍사스에도 사계절이 있지만, 미시간보다 덥고 긴 여름이 있고, 춥지 않은 짧은 겨울이 있어요. 미시간에서는 눈을 자주 보지만, 텍사스에서는 눈이 자주 오지 않아요. 저는 텍사스보다 미시간의 사계절을 더 좋아해요.



날씨가 더 시원하고 겨울이 여름보다 더 길기 때문이에요.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되면, 엄마와 같이 커뮤니티 가든에 가서 일을 해요. 퇴비와 흙을 섞고, 잡초를 뽑아요. 밭일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봄에는 근처에 있는 캠핑장으로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요. 불을 피우고, 마시 멜로를 구워서 먹어요.

가족과 함께 텐트에서 자는 게 재미있어요. 하지만 겨울에 쌓인 눈이 녹으면 땅이 질척거리고 신발이 더러워지는 거는 싫어요. 여름에는 방학이 있어서 쉴 수 있고 재미있는 곳으로 흘러 갈 수 있어서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산딸기를 농장에 가서 따고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농장 가서 따 먹으면 더 맛이 있고 재미있어요. 하지만 여름에 너무 더우면 땀이 많이 나서, 냄새가 나고 끈적해져서 불편해요. 그래서 아주 더울 때는 가족과 함께 근처 계곡에 가서 물놀이를 해요.

가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에요. 나뭇잎 색깔이 예쁜 노랑, 주황, 그리고 빨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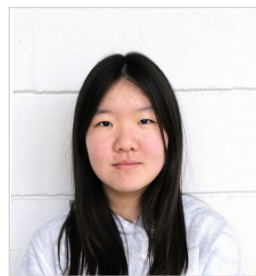
으로 변하면, 정말 예뻐요. 근처 사과 농장에 가서 사과를 따고 맛있는 도넛과 사과 주스를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할로윈에는 친구들과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사탕을 받는 게 재미있어요. 사탕을 다 받고 나서 친구들과 교환하면, 제가 좋아하는 사탕만 남아서 좋아요.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면 친구들과 스노우 보드를 타러 가요.

리프트를 타면서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스노우 보드를 오래 타고 나서 따뜻한 핫초코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가끔 너무 춥거나 눈이 많이 오면, 학교 수업이 취소되고 집에서 쉴 수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미시간은 시원한 사계절이 있는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생 미시간에서 살고 싶어요.

미시간의 사계절

고운상 최서윤

네가 살고 있는 미시간은 한국과 똑같이 사계절이 있어요.



그러나 미시간의 겨울은 한국의 겨울보다 훨씬 더 길고 눈이 많이 와서 학교를 못 가는 날이 많아요. 그리고 미시간의 여름은 많이 덥지 않고 습도도 낮아서 야외 활동을 하기에 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봄방학이 있는 봄을 좋아해요. 그러나 저는 가을이 가장 좋아요. 우선 가을에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날인 저의 생일이 있어요. 지난 생일에는 제가 딱 한 명의 친구에게 저의 생일은 알려 주었는

데 저에 다른 친구들도 제 사물함을 꾸며 주었고 선물도 많이 준비해 주었어요. 이런 행복한 날 덕분에 가을이 더 좋아졌어요.

6학년 가을에는 학교에서 2박3일 캠프에 갔었고, 캠프에서는 물에서 냄새가 나고 샤워장이 너무 더러워서 3일 동안 이도 못 닦고 씻지도 못했지만 친구들과 3일 동안 노는 게 오히려 재미있었어요.

7학년 가을에는 시더 포인트로 하루 종일 소풍을 갔었어요. 시더 포인트에서 줄이 너무 길어서 놀이 기구를 많이 못 탔지만 친구들과 줄에서 수다를 떨면서 친구들과 더 친해졌어요. 캠프에서는 핸드폰을 들고 가지 못해서 사진이 많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시더 포인트에서는 추억이 많이 담긴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기억이 더 잘 남았어요. 가을마다 캠프나 소풍이 있어서 가을이 항상 기대가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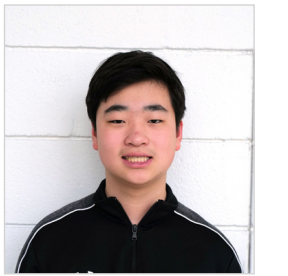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할로윈은 가을에 있어요. 저는 매년 친구들과 꾸미고 사탕을 받으며 동네를 돌아다녀요. 지난 할로윈에는 친구들과 같이 미니언즈로 꾸미고 집집마다 다녔어요. 날씨는 조금 쌀쌀했지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날씨가 별로 춥지 않게 느껴졌어요. 매년 가을마다 친구들과 할로윈에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는 게 항상 재미있어요.

이처럼 가을은 저의 날인 생일, 추억이 많이 담긴 캠프와 시더 포인트 그리고 할로윈이 있어서 가을이 항상 설레요. 이런 행복한 날 덕분에 가을이 정말 빨리 가고 항상 기대가 돼요

미시간의 사계절

아름다운상 오은수

미시간은 긴 겨울로 유명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각 계절마다 다른 모습이 있



습니다. 미시간의 계절은 북부 오대호의 영향을 받는다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호수의 영향을 받은 미시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어떨까요?

우선 봄은 짧지만, 초록이 가득해져서 아름다워 보입니다. 또, 꽃들도 많이 핏니다. 봄에는 홀랜드에서 하는 튜립 축제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트로이에서 3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홀랜드가 있습니다. 홀랜드에는 네덜란드에서 온 이민자들이 정착해서 만든 곳이라, 튜립을 심고 키웠다고 합니다. 봄이면 홀랜드에 가서 가득 피어 있는 튜립도 보고,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정원에 있는 벚나무에도 자주색 꽃이 많이 핏니다. 그렇게 짧은 봄이 지나면, 초록이 가득하고 바깥 활동을 하기에 좋은 여름이 옵니다. 여름은 조금 덥지만, 한국처럼 바깥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덥지는 않습니다.

여름에는 따뜻하고 습도가 적당하며, 호수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덕분에 매우 쾌적합니다. 수많은 호수와 강이 있어 낚시를 즐기기엔 완벽한 계절입니다. 특히 배스, 퍼치, 파이크 같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배를 타고 나갑니다. 여름에는 수영, 카약, 패들 보트 같은 물놀이도 많이 있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하이킹을 하며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시간의 여름은 자연 속에

서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기기 최고의 시간입니다.

미시간의 가을은 신선한 공기와 화려한 단풍 덕분에 사냥꾼들이 사슴과 멧돼지를 사냥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북부에 하이킹 하러 온 하이커들이 캠핑과 자연을 즐기려고 옵니다. 또 트리 앤 터널이라는 곳에 갈 수도 있어요. 트리 앤 터널에 핏물이 든 것 같은 빨강색이고, 레몬처럼 노란 나뭇잎도 있어요.

겨울은 춥고 눈이 많이 옵니다. 추운 공기가 북서쪽에서 내려오면서 미시간 호수와 그레이트 슈프림 호수를 거치면서 수분을 빨아드려 눈비로 변합니다. 그래서 눈썰매나 스키, 눈사람을 만드는 겨울 활동이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미시간에 살면서 사계절이 뚜렷하고 특색이 있는 미시간에서 사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미시간의 사계절

예쁜상 이진

미시간에는 한국처럼 사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 있는 미시간 계절이 좋아요.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겨울에만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있어요. 겨울 스포츠는 스키, 스노보드, 그리고 썰매가 있는데, 제가 썰 좋아하는 스포츠는 스노보드입니다. 동생이랑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 수 있으니까 좋아요. 열심히 놀고 나서 마시는 핫초코는 겨울에는 더 맛있어요. 제가 겨울을 제일 좋아하는 이



유는 크리스마스가 있고 제 생일이 2월에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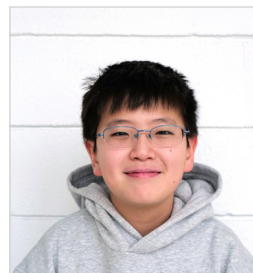
그다음으로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방학이 있어서 학교를 안 가서 좋아요. 가족들과 캠핑 가서, 바비큐를 해서 맛있는 거 먹고 마시 멜로를 구워 먹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바닷가에서 물놀이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패들 보트입니다. 파도의 움직임에 따라 바람을 맞으며 보트를 탈 때 신이 나요. 그리고 여기저기 여행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름이 좋아요. 봄과 가을은 계절의 변화가 있어서 좋아요.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봄은 싱그러워요.

엄마랑, 여동생이랑 같이 야채 씨앗을 가든에 심는 것도 재밌어요. 가을에는 예쁜 단풍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가을에는 할로윈과 땡스기빙이 있어서 사탕도 많이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이런 사계절이 있는 미시간에 살고 있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즐거운 게 많이 있어서 좋아요.

미시간의 사계절

김영제

미시간에는 사계절이 있어요. 봄은 비가 많이 오고 조금 추워요. 그러나 예쁜 꽃들이 피기 시작해요. 여름은 덥지만 나무 그늘에는 시원해요. 여름은 많은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아해요. 여름은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학교가 없어요. 가을은 추워지기 시작하고 할로윈이 있어요.



그리고 가을은 나뭇잎 색깔이 변하고 낙엽이 많이 떨어져요. 미시간에 겨울은 많이 춥고, 눈이 많이 와요. 겨울은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겨울은 제가 좋아하는 계절이에요. 선물을 많이 받고 사촌과 함께 미식축구를 같이 해요. 우리 가족은 좋아하는 계절이 달라요. 아빠는 가을을 좋아하고 엄마는 여름을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는 겨울에는 스키도 많이 타고, 썰매도 많이 타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계절만 있는 것보다 계절이 여러 개 있는 게 좋아요.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스노우 보드를 타서 좋아요. 그리고 밖에서 친구하고 같이 눈싸움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겨울이 좋아요.

미시간의 사계절

부제 : 6개월의 추위

송석연

어느새 1년의 절반도 더 넘게 지나가고 낙엽들이 사라져 갈 때면 어떤 날 갑자기 찾아온 눈송이와 점점 두꺼워져 지는 옷들이 익숙해질 때 한 번에 너무 많이 찾아온 눈들 덕분에 하루를 쉬게 됐을 때도 이번 겨울은 언제 끝날까? 고민 고민할 때도 언제나 즐거운 친구들과 눈싸움을 할 때면 모든 고민과 근심이 내려간다. 즐거운 나날을 보내며 시간 가는 줄 모를 때 불쑥 나타나 즐거움을 주는 크리스마스 기간이 시작되어 가고 학교를 완전히 적응하면 다음 연도가 곧 찾아온다고 말해주는 달력을 보며 설렘 반 걱정 반으로 12월을 보낸



아름다운 미시간의 겨울

이은서

미시간은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나는 미시간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좋아하지만 겨울을 가장 좋아해요. 미시간의 겨울은 아주 춥고 눈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나의 엄마는 겨울을 싫어해요. 너무 춥고 눈이 많이 와서 노스쿨이 되면 나는 벽난로를 켜고 이불을 덮고 아름다운 눈을 봅니다. 핫 코코아를 마시며 눈을 보면 너무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또 우리집에서 스키장은 아주 가까워요. 나는 겨울이 되면 언니와 친구들과 스키를 타러 갑니다. 스키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겨울 스포츠입니다. 여러분, 추운 미시간의 겨울을 싫어하지만 말고 아름다운 겨울을 사랑해 보세요!!



미시간의 사계절

김규림

나는 겨울이 좋다. 왜냐하면 나는 밖에서 내 친구들과 눈사람을 만들고 놀 수 있다.



그리고 겨울에는 학교가 일주일 동안 쉰다.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을 정말 싫어해서 좋다. 나는 겨울도 좋지만 봄도 정말 좋아한다. 봄에 내 생일이 있다. 나는 생일 때 놀고 선물도 받는 게 좋다.

여름도 좋은 계절이다. 여름에는 맛있는 과일이 나온다. 여름에 나오는 과일 중에서 내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박이다. 수박은 달고 모든 마트에서 살 수 있다.

가을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계절이다. 가을에는 할로윈이 있다.

그리고 나는 할로윈이 재밌다고 생각한다. 할로윈에는 무서운 장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할로윈에 무서운 옷을 입고 친구들과 사탕을 받으러 갈 수 있다. 내 친구와 나는 둘 다 신맛이 나는 사탕을 좋아한다. 근데 슬프게도 이번 할로윈에는 단맛 사탕을 신맛 사탕보다 많이 받았다.

모든 계절들은 다 예쁜데 나는 겨울이 가장 좋다. 겨울에는 눈사람도 만들 수 있지만 크리스마스도 있다. 크리스마스에는 가족 아니면 친구들과 같이 모일 수 있다. 같이 모여서 선물도 받고 밥도 같이 먹는다. 러 갑니다. 스키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겨울 스포츠입니다. 여러분, 추운 미시간의 겨울을 싫어하지만 말고 아름다운 겨울을 사랑해 보세요!!

미시간의 사계절

전레오

미시간에는 사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봄에는 노란 수선화랑 튤립이 있어요. 그리고 봄방학이 있어요. 그다음엔 여름이 있어요. 여름에는 해가 길고 날씨가 좋아요. 그래서 밖에서 파티를 하고 고기를 구워요. 밤에 스모스를 만들고 먹어요. 그리고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보러 야구장에 가요. 그리고 여름에는 여행을 가요. 가을에는 추워요. 학교를 다시 가고 학년이 올라가요. 낙엽이 아름답고 도넛과 사이다를 먹어요. 무엇보다도 가을에는 할로윈이 있어요. 겨울에는 학교를 가고 눈이 와요. 나는 라이온스 팬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에는 풋볼을 봐요. 눈 사람을 만들고 뜨거운 핫 초콜릿을 마셔요. 이것이 미시간의 계절이에요



미시간의 사계절

이지우

저는 겨울은 정말 좋아해요. 겨울이 너무 재미있고 공기도 차가워서 정말 좋아요. 감기에 걸리는 건 싫지만, 그래도 겨울을 즐기는 건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갈 때 차가운 공기를 마시는 게 정말 좋거든요.



눈이 그치고 나면 눈을 공중으로 던지는 것도 좋아해요. 눈이 내리지 않을 때도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미시간의 사계절

신키건

저는 제일 좋은 계절이 가을입니다. 왜냐하면 가을은 춥지도 덥지도 않아요. 봄도 가을과 비슷하지만 미시간 봄은 너무 날씨가 춥고 그리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저는 봄은 안 좋아요. 여름은, 너무 덥고 땀이 많이 나서, 또 겨울은 눈이 정말 많이 오고 그리고 너무 추워요. 가을에는 바람이 시원해서 정말 시원해요. 가끔 너무 추운 때가 있지만,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날씨가 좋아요. 그외에도 가을 나뭇잎은 색깔이 바뀌어서 예뻐요. 나뭇잎이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아니면 갈색으로 변해서 이뻐요. 저는 미시간 가을이 사계절 중에 제일 좋아요.



2025 - 2026년 한 해 동안 달반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은 제게 교사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깊이 남아 있습니다. 한글학교에서의 배움은 글자와 문법을 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두 문화 속에서 스스로를 당당히 표현하는 힘을 키워 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마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의견을 나누고 질문하는 친구들의 모습은 늘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해 나갔습니다. 이 경험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 든든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모든 순간이 쉽지만은 않았습니. 실수도 있었고, 도전 앞에서 망설이기도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은 성장의 증거였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며 달반은 더욱 단단한 공동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추석과 설날 행사에서 한복을 입고 재기차기와 윷놀이를 함께했던 시간은 우리 문화를 몸으로 느끼고, 친구들과의 유대를 깊게 만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글학교 8학년, 달반 과정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쌓은 언어의 힘과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함께한 추억들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 있게,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갈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성장을 지켜볼 수 있었던 선생님으로서 큰 자부심과 감사를 전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여행

달상 이라엘



“와! 정말 멋있다!” 제 동생은 큰 눈으로 동영상 을 보면서 말했어. 뒤에서 보고 있던 저는 물 어봤어. “여기가 어디 야?” 화면에는 길고 큰 적갈색 나무들이 있었고, 동굴 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 맑고 반짝거리는 물은 동굴 바닥에 흐르고 있었고, 동굴 위에서도 똑똑 떨어졌어. 그리고 또 경치가 좋은 곳 에서 사람들이 등산하는 모습도 보여줬어. 그곳은 캘리포니아 동 중부, 시에라 네바다 에 있는 세쿼이아 국립공원이었어.

세쿼이아 국립공원은 거대한 세쿼이아 나무 들을 보호하려고, 1890년에 미국에서 두 번 째로 지정된 국립공원이에요. 국립공원 안 에는 세쿼이아 나무들과 높은 산, 깊은 협곡, 그 리고 동굴들이 있어요.

세쿼이아 나무는 나무껍질이 아주 두껍고, 부드러운 섬유질로 되어 있어 불에 잘 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거대한 나무들은 3000년 넘게 살 수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종이에요. 세쿼이아 나무들이 모여있는 ‘자이언트 숲속’에는 ‘제너럴 셔먼’ 이 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어요. 이곳 에 가면 산불 때문에 세쿼이아 나무들이 어 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불이 꺼지고 새로 자 라는 세쿼이아 묘목들도 볼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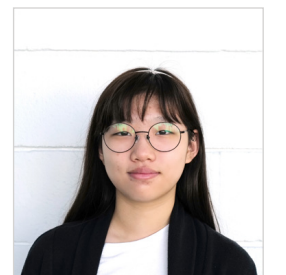
세쿼이아 국립공원에서 볼 수 있는 다른 관 광 명소는 동굴들이에요. 세쿼이아에서 제일 아름다운 동굴은 ‘크리스털 동굴’ 이에요.

이 동굴은 다양한 종류의 종유석과 석순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다른 신기한 모양들 도 달려있어요. 지금도 동굴에서 물이 계속 흐르면서, 돌들을 깎고 녹이고 있어요.

세쿼이아 국립공원에 대해 더 찾아보고 알아 보니, 나중에 거기로 여행을 꼭 가고 싶어졌 어요. 저는 꼭 자이언트 숲속을 걸어 다니면 서 구경을 하고, 제너럴 셔먼 나무와 사진을 찍고 싶어요. 이곳으로 여행 가면 아주 기억 에 남는 여행이 될 것 같아요.

내가고싶은 여행

아름다운상 김연서



제가 항상 가고 싶었던 나라는 일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일본 애니메 이션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일본이란 나라를 정말 좋 아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스즈메의 문단속,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그리고 귀멸의 칼날 등등의 작품들을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노래들도 좋 아해서, 일본에 가고싶어요. 애니메이션 속 멋진 장면들, 음악, 그리고 캐릭터들 때문에 더욱 일본을 가보고 싶은 것 같아요.

일본에 가면 제일 먼저 지브리 박물관에 가 보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지브리 영 화를 좋아해서 우리 가족이 재밌게 구경 할 수있을거 같아요. 영화 속 장면들을 직접 본 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귀여운 캐릭터 굿즈도 사면 재밌을 거 같아요.

또 한 곳, 꼭 가보고 싶은 곳은, 일본 유니버설 스튜디오입니다. 그곳에는 애니메이션과 영화 속 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재밌는 놀이기구들이 많이 있어서 재밌을거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생긴 나는귀멸의 칼날이나 슈퍼 닌텐도 월드 같은 테마존이 있다고 해서 정말 멋있을 거 같아요. 저는 놀이기구랑 만화를 좋아하니 신나게 놀수 있을거 같아요. 가족과 함께 하루 종일 놀고 맛있는 음식도 먹는다면 최고의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 음식을 아주 좋아합니다. 라면, 스시, 그리고 대망의 편의점 음식까지.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일본 라면을 먹어보면 너무 맛있을 거 같아요.

저는 언젠가 꼭 일본 여행을 가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의 배경지를 직접 보고, 일본 문화를 느끼며 재밌게 놀고 싶습니다. 저에게 일본 여행은, 상상 속 세상을 만나는 느낌일 거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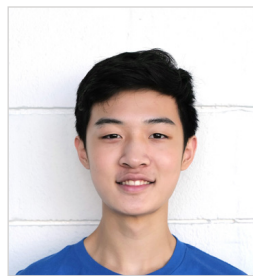
내가 꼭 가보고 싶은 곳

양지훈

내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은 지도에 표시된 어떠한 장소가 아니다.

그곳은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내가 언제나 궁금해 했고, 종종 상상해 보는

나의 미래의 공간이다. 현재의 나의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내가 되어 나의 미래로 변했는지 나는 늘 궁금했다. 나는 아직 가보지 못한 나의 미래의 공간을 한번 상상해 보려



고 한다. 그곳에 나는 조용하고 따뜻한 연구실 안에서 시작된다. 나는 로봇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내가 만든 기계들은 사람들의 일상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준다. 특히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발명품을 완성했을 때, 나는 나의 일에 큰 기쁨을 느낀다. 내가 만든 기술이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이 이곳에서의 나의 가장 큰 행복이다.

그곳에 나는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것만 아니라, 가끔은 바이올린을 들고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 연주를 한다. 내 연주가 시작되면 그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가끔은 위로가 되며 때로는 새로운 꿈을 떠올리게 만들기도 한다. 나는 음악이 말없이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믿는다.

나의 미래엔 기술과 음악이 먼 관계가 아니다. 내가 연구하는 기술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고 나의 음악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조각조각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점이 나의 삶을 특별하게 만든다.

그곳은 아직 나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곳이다. 그곳에 내가 언제 도착할 수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한다. 또 그곳에 가는 길은 멀고, 어렵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내가 도전하고 있는 모든 순간이 분명히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는 소중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상상한 그곳에 내가 도착했을 때 지금의 나를 만들어 준 모든 순간

들에 감사하며 웃을 것이다.

내가 가고 싶은 여행

최예린

제가 가장 가 보고 싶은 곳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용하고 책 냄새가 나는 도서관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에 들어서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깊어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나라의 도서관을 직접 가보고 싶다는 꿈을 키워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가 보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직지심체요절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직지심체요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데에는 박병선 박사의 노력이 컸다고 합니다. 박병선 박사는 오랫동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자료를 조사하며, 직지심체요절이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먼저 만들어진 금속활자본임을 밝혀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인쇄 문화의 우수성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한글학교 역사 시간에서 직지심체요절의 사진을 처음 보았는데, 누렇게 바랜 종이에 한문이 정성스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고려 시대의 선조들은 글자 하나하나를 금속으로 만들어 책을 찍었습니다. 그 노력과 지혜를 떠올리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우리 역사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책이 지금은 한국이 아닌 프랑스에 있다고 합니다. 조선 시대에 프랑스 공사가 수집 과정에서 불법으로 반출되었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책이 프랑스에 있다는 사실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직접 가보고 싶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을 직접 보면 우리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좀 더 나은 지구

이강

만약 제가 어디든 여행할 수 있다면, 이곳이 제가 가고 싶은 곳입니다.

나는 지구와 같은 곳을 원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울창하며, 푸른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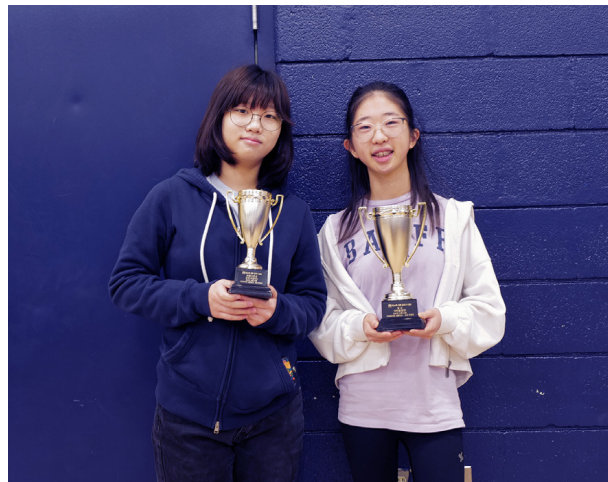
우렁찬 강, 깊은 협곡,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 유일한 차이점은 인간의 활동과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염이 없고, 인간, 식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곳. 이곳은 항상 내가 꿈꿔왔던 것들이 존재하는 곳이다: 산, 사막, 해변 어



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몰과 일출, 여러 가지 생태계, 그리고 날씨 조건. 낮에는 태양을, 밤에는 달과 별을 감상할 수 있는 하늘이 있는 곳입니다. 식물은 가장 큰 레드우드 나무부터 가장 작은 꽃까지 다양합니다. 동물들은 너무 많아 모두 이름을 지을 수 없을 만큼 색이 다채롭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인간이 있다. 과거의 실수를 되돌리고, 발전을 지혜롭게 이끄는 인간, 평화를 사랑하고 선입견을 추하게 생각하는 인간이 살고 있다. 사람들은 기술이 아닌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 완벽한 세계에서 균형과 조화가 모든 것이다.



별반

교사 이주현

팔십 노인도 세 살 먹은 아이한테 배울 것이 있다' 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별' 반의담임 교사로 교단에 서면서 제가 '가르쳤다' 는 기억보다는 학생에게로부터 '배웠다' 는 기억이 더 많이 남습니다.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자기 계발에 힘쓰며 성실함으로 삶을 대하는 '별' 반 학생들의 태도를 보면서 '역시 근면성의 한국인이다' 라는 감탄과 어른으로서 많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0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등교해 준 성민이, 아윤, 재연, 하온이와 9학년이 되어 새롭게 만난 나연, 다연, 석연, 연서, 준우, 호준이에게 1년동안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며 자녀를 위해 매주 토요일마다 헌신해 주셨던 학부모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교단에 서면서 한순간도 아이들이 사랑스럽지 않았던 적이 없을 만큼 '별' 반의 친구들을 사랑하고 늘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내 마음 속의 책 장폴 사르트르의 소설 『구토』

별상 이연서

누군가가 길을 알려줬으면 할 때가 있었다. 어린 날의 나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것이 맞는 결정인지 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오아시스



스를 향해 달려가고 싶다가도 태양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다.

이 사막에서 뭘 해야 할지, 내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지 답을 찾을 수 없었기에 같은 자리를 헤매고만 있었다. 그런 고민을 했을 당시, 나는 장폴 사르트르의 장편소설 ‘구토’ 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다. 이 책은 주인공 앙투안 로캥탕의 경험을 일기장의 형식으로 풀어어나가는 소설이다.

작은 마을의 역사학자 로캥탕은 반복적이고 따분한 일상을 살다가 알 수 없는 계기로 인해 인생의 큰 전환점을 경험한다. 그것은 바로 나무나 책상 같은 물체들을 사회가 규정 한 인위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고, 날 것의 존재 자체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그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우연히 형성된 세상 속에서 공간을 채우기만 하는 ‘잉여의 존재’로 보게 된다.

이러한 경험이 지속될수록 느껴지는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자신의 일기장을 기록해가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내게 큰 공명을 주었다. 삶의 무의미함에 고통 받는 로캥탕과 혼돈 속에서 방

황하던 나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사르트르는 이 소설로써 세상의 무의미함에 자신의 실존주의 철학을 제시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존재는 본질을 앞선다.” 삶에는 내제된 규정이나 목적, 혹은 의미가 없기에 오직 스스로의 선택만이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사르트르의 철학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각자 자신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형성해 나갈 자유로운 책임이 주어진다. 즉, 필연적인 의미가 없는 세상의 부조리함은 결핍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가치를 채워나갈 수 있는 빈자리라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삶이라는 공허한 백지 한 장이 주어진다. 로캥탕이 발견한 인위적인 규칙에서 벗어난 날 것의 세상처럼, 우리의 백지 한 장에도 허무함에서 오는 불쾌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존주의는 그 종이로 무엇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

먼지 하나 없는 새하얀 종이가 나중에는 어떤 빛깔과 모양을 가지게 될 지는 순전히 우리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종이 위에다 선을 긋기 시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외부의 힘도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없다.

이 책을 읽고 나는 다시금 나의 사막을 돌아 보았다. 목적지를 향해 달려 왔는데, 정작 아무런 풍경도 없었던 순간들이 떠올라 마음이 답답해졌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알게 되었다. 불안감과 혼란에 휩싸이는 경험도 내가 의미를 부여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하나의 여정이 될 거라는 것을.

이 사막이 낙원이 될지, 모래더미가 될지는 나의 결정에 달렸다. 그러므로 나는 이 순간을 즐기며 방황하면서도 나아가갈 것이다. 그것이 내가 정한 삶의 가치이자 이유니까.

내 마음 속의 책 텔미 왓 리얼리 헤펀드 (Tell Me What Really Happened)

아름다운상 박나연

내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은 Chelsea Sedoti의 YA 미스터리 소설 『Tell Me What Really Happened』이다. 이 책은 여름방학 동안 읽고, 읽은 후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남게 되었다. 약 416쪽에 달하는 책을 단 이틀 만에 읽었다. 처음 이 책을 선택했을 때 미스터리 장르라서 나의 관심을 끌었고, 읽기 시작하자 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 하루 종일 이 책을 들고 다녔다.



저녁에 비가 내렸고 언니와 밖에 나가서 빗속에서 놀았다. 밖에 있는 동안 나는 책 이야기만 했다. 어떤 부분이 헛갈렸고, 어떤 점이 답답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흥미로웠는지 이야기했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고 다음 날 책을 다 읽었다.

이 책은 ‘우정과 진실’에 대해 나에게 영향을 주었다. 책에서 우정과 관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반에 나오는 다섯 명의 십대 청소년들은 처음부터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들의 관계가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서로를 더 아끼게 되고, 각자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어려움들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서로 소통하지 못하거나 의견이 달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장면들도 나온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는 ‘나’와 내 친구들과의 관계를 떠올리게

되었다. 우리 생각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서로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는 순간들이 종종 있다. 이 책에서는 여행 중에 우정이 깨질 뻔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만 결국 함께 노력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이 책을 통해 나는 완벽한 우정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 생각을 바꿔 놓은 또 다른 부분은 ‘진실’, ‘거짓말’, 그리고 ‘비밀’이다. 이야기 속에서 많은 비밀과 거짓말이 등장하고 결국에는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지는 내용을 통해 내 삶과 주변 사람들과의 상황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했던 거짓말을 떠올려 보았고 작은 거짓말이 점점 큰 비밀이 되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비밀은 결국에는 사람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깊이 깨닫게 되었다.

이 책은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날 때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바로 용서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계속되는 거짓말은 점점 불어난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결국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과 진실 모두의 결과를 감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 하나만을 마주하는 것이 낫다고 느꼈다.

Chelsea Sedoti의 YA 미스터리 소설 『Tell Me What Really Happened』는 우정의 참된 의미와 진실이 지닌 힘에 대한 책이다. 이 책은 나에게 우정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과 진실이 가진 힘에 대해 가르쳐 주었기에 정말 재미있고 즐겁게 읽을 수 있었다. 미스터리 장르를 좋아하거나 복잡한 구성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

천한다.

내 마음 속의 영화 원더(Wonder)

고운상 오하은

『Wonder』라는 작품은 책이든 영화든 나에게 특별한 따뜻함과 깊은 공감감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기(Auggie)의 겉모습과 병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가지는 편견, 그리고 학교라는 작은 세상에서 어기가 느꼈던 외로움은 나의 경험과 비슷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나는 재일한국인으로 일본에서 태어나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세 나라의 문화를 접하면서 살고 있다 보니, 내가 어느 곳에서도 완전히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이방인’ 같은 느낌은 어기가 주변의 시선을 무서워하는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특히 영화에서 나온 어기의 표정 변화는 내가 가진 콤플렉스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나의 성격하고 닮아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나는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지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생각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반응에도 예민해지고 상대방의 표정을 읽으면서 행동하며 불안해질 때도 많았어요.

어기가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하거나, 처음 보는 사람의 반응을 살피는 버릇은 딱 그때의 나 자신과 똑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가 조금씩 용기를 내서 친구들을 사귀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작품을 보고 나서도 가슴에 깊이 남은 대사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아름다움이 사람을 빛나게 한다.” 라는 것이었어요. 나는 어느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혼자 상처받고 나의 능력, 성격,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있었어요. 어떤 곳에서도 완벽하지 않고 “여기는 네 자리가 아니야.” 라고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 이유를 전부 내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화 『Wonder』를 보고 나니 정말 소중한 것은 외모나 국적이 아니라 내면의 매력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것보다 나의 진심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찾는 것이 몇 배나 의미 있고 소중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꼈어요.

『Wonder』는 단순히 외모나 따돌림을 다루는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로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조용하지만 강하게 전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지금 새로운 ‘나’를 찾아가고 있는 나의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내 마음 속의 영화 Everybody Hates Chris

예쁜상 박재연

나는 열다섯 살의 평범한 학생으로 특별할 것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나의 삶은 영화 『Everybody Hates Chris』의 주인공 ‘크리스’와 참 많이 닮아 있다. 왜냐하면 나



도 크리스처럼 매일매일 학교와 운동 그리고 여러 활동들로 인해 늘 바쁘기 때문이다. 아침마다 피곤하고 잠이 덜 깬 상태로 일어나 어둡고 추운 이른 아침 시간에 스쿨버스를 타고 등교를 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크리스처럼 어려운 숙제를 완성해야 하고 시험을 잘 치러야만 한다. 가끔은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하지만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어려운 부분들을 잘 도와주고 격려해 준다. 점심시간이 되면 친구들과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학교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나 걱정을 잠시나마 잊게 된다. 주말이나 방학 같은 시간은 내가 한 해를 잘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이 시간들은 고등학교 졸업까지 2년 반밖에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내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

그래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모두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믿고 학교에서 지친 몸으로 집으로 향할 때마다 참고 견디며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다. 또한 방과 후 클럽 활동과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학교 생활에 활력을 찾으려 한없이 노력한다. 때로는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부어 힘들 때도 있지만 뒤쳐지지 않으려는 이 모든 노력들이 나를 얼마나 발전시킬까를 생각할 때 비로소 나는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지금까지 나열한 모든 것들이 앞서 말했듯이 영화 『Everybody Hates Chris』의 주인공 ‘크리스’가 형제들과 비교하며 느꼈던 것과 많이 닮아있다. 나는 지금의 ‘나의 열심’이 나중의 나에게 보상해 줄 것을 믿고 계속 열심히 나아가

려 한다. 바쁜 생활 속에서 힘들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생각보다 엉망진창일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의미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영화 속 주인공 크리스가 겪었던 여정처럼.

내 마음 속의 영화 메이즈 러너 (The Maze Runner)

박다연

영화 메이즈 러너 『The Maze Runner』 내가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게 본 영화다. 나는 최근에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집에서 가족과 이 영화를 봤



는데 그 이후로 내 최애 영화가 되었다. 메이즈 러너는 SF 영화로 기억을 잃은 채 이름만 아는 청소년들이 큰 미로에 갇히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미로를 탈출하기 위해 힘을 합치면서 어려운 선택들을 맞이하게 된다. 영화 속 다양한 캐릭터, 스토리, 그리고 배경은 중요하고 흥미롭게 만들어져서 영화 자체가 사람을 빠져들게 한다.

캐릭터들은 팀워크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좋은 것 같다. 캐릭터들은 서로 다른 때 미로에 들어왔지만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강한 관계와 멋진 팀워크를 쌓는다. 캐릭터들 간의 관계는 현실적이라고 느껴졌고, 각자 맡은 역할과 그룹이 더 현실적으로 보였다.

위험을 감수하고 그룹을 이끄는 몇몇 캐릭터들을 보면서 그들의 용기를 느낄 수 있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못했을 것 같다. 낯선 사람들과 미로에 살아 남아야 하고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한 채 무기까지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나는 잘 못할 것 같다.

영화의 스토리는 나에게 흥미로웠다. 계속 궁금하고 집중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왜 아무도 이름 빼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까? 미로는 왜 만들어졌을까? 캐릭터와 관객 모두 이유를 모르기때문에 긴장감이 생긴다. 캐릭터와 내가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여러 번 탈출을 시도하다 실패하는 과정은 관객을 집중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런 점이 스토리에 더 자연스럽고, 급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해서 좋았다.

영화의 배경은 미로와 이 배경 자체가 미스터리라서 나는 영화가 더 재미있게 느껴졌다. 미로는 캐릭터들에게 매우 위험한 장소이며, 그들을 쫓는 괴물들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배경은 예측할 수 없고, 캐릭터들이 답이 없는 상황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은 나도 현실에서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높은 미로의 벽은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주어 캐릭터들이 서로 의지하게 만든다. 나는 이 미로가 현실에서 맞는 규칙이 없을 때 겪는 어려움과 비슷하게 느껴졌다. 위험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노력해야만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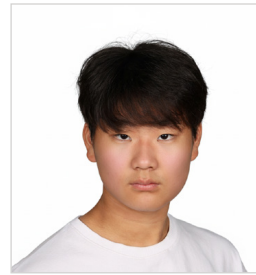
이러한 이유로 나는 영화 『The Maze Runner』를 흥미롭고 재미있게 본 영화라고 생각하며, 내 최애 영화가 되었다. SF 장

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이 영화를 즐겁게 봐서 놀라웠다. 이 영화는 나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더 보고 싶게 했다. 나는 이 영화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며 꼭추천하고 싶다.

내 마음 속의 영화 아바타(Avatar)

송석연

혹시 『아바타』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대략 초등학교 5학년쯤에 한 번 봤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봤던 이유는 제가 영화에 관심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바타』가 세기의 명작이라는 이야기를 어딘가에서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도 가끔 인기가 많은 영화만 보다 문득

‘이 영화 속의 주제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제가 봤던 영화는 주제나 메시지가 없거나 알아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바타 만큼은 어린 나이였던 저한테도 주제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주제가 잘 이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가 심오하게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저의 ‘인생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화 『아바타』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반신을 잃은 퇴직 군인인 제이크 설리는 나비족이라는 외계 종족의 주거지를 옮겨 초전도체 물질이었던 언

오펜을 채굴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둘째, 제이크 설리가 형이며 쓰러던 나비족의 형상을 띤 인공 생명체, 즉 아바타를 제이크가 그의 형을 대신해 조종하며 나비족과 접촉하는 것.

셋째, 제이크는 얼떨결에 아바타 나비족의 족장의 딸 네이티리와 접촉 및 깊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넷째, 제이크는 점점 네이티리와 사랑에 빠지고 임무를 진전 시키지 않습니다. 다섯째, 제이크는 임무 때문에 네이티리와 접촉한 것을 들리게 되고 신뢰감만 잃습니다. 심지어 명령을 내렸던 퀴리치 대령은 나비족을 침략하려 합니다.

여섯째, 제이크는 나비족을 돕기로 하고 인간들을 몰아 내고 의식을 통해 제이크의 영혼을 그의 아바타에 옮겨 나비족의 족장이 됩니다.

이 영화의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퀴리치 대령이 제이크를 임무를 속히 진행하라 재촉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저한테 인상 깊었던 이유는 이 장면으로써 퀴리치 대령은 나비족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과 고용한 회사를 더 우선시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장면으로 제이크 설리의 나비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더 고조시켜 영화의 격을 한층 더 높이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퀴리치 대령이 점점 제이크 설리의 신뢰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이 영화가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사람의 본성은 다른 이들을 고려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 근거로는 퀴리치 대령과 제이크 설리가 있습니다. 퀴리치 대령은 작품 중간중간에 자신과 그를 고용한 회사의 이익으로 움직이는 것을 대놓고 보여주었습니다. 제이크 설리 또한 중요한 임무를 하고 있음에

도 사랑을 선택하는 어찌 보면 책임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들 외에도 다른 이가 아닌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는 몇몇 인물들이 등장함으로써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관객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점점 나비족에 대한 편견을 부수는 제이크 설리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평등함을 세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또한 전했습니다.

결국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기적인 본성과 외형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해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라는 궁극적인 주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이해하기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주제가 ‘나’와 ‘이 세상’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마음 속의 영화 어바웃 타임(About Time)

장아윤

내가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는 『어바웃 타임』이다. 이 이야기는 시간을 마음대로 되돌릴 수 있는 남자가 운명이라고 느끼는 여자를 만나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랑을 이어가는 스토리이다. 어떤 사람들은 뻔한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가장 많이 웃음 짓고, 울었던 영화이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물어보면 이 영화를 말하는 것 같다.



영화 안에 많은 장르들이 있는데 이 장르들

이 마치 인생과도 같다고 생각했다. 내 마음 속에도 수만 가지 장르들이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영화 속의 상황과도 같이 내 기분도 시도 때도 없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내 상황도 자주 바뀐다. 항상 인생은 어디에서 클라이맥스가 나올지도 모르는 영화 같다'고 생각했다. 그 인생이 영화 『어바웃 타임』 같이 뻘한 사랑 이야기 일 수도 있고, 코미디 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슬플 수도 있다.

영화는 감독이나 작가가 정하는 대로 이야기가 흘러가니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장르를 정할 수도 있고, 곧 펼쳐지지 않은 클라이맥스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바웃 타임』의 명대사 중 하나는 “우리는 모든 삶을 여행하고 있어.” 라는 대사인데, 그 대사가 가장 와닿았던 것 같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어떤 클라이맥스가 펼쳐질지 모르기에 항상 내일을 기대하며 사는 것 같다. 내가 주인공처럼 과거도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나는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로또나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겠지만 나는 이 감동적인 영화를 보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사람을 보러 아주 먼 시간까지 날아갈 것이다. 그리고 『어바웃 타임』에서 주인공이 과거를 고치려다 자신의 현재까지 망가질 뻘한 걸 보았다. 만약 나였으면 과거의 실수는 과거에 두고 미래나 현재에만 집중할 것 같다. 과거에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실수로 인해서 항상배운 게 있으니 그대로 두고 더 발전하는 나로 둘 것 같다. 물론 사랑에서도 나는 ‘운명’을 믿는 타입이라 우연히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다는 로망도 있다.

내가 이런 사랑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건 『어바웃 타임』의 영향도 있다. 이 영화는 흔히 인생 영화라고 할 만큼 나에게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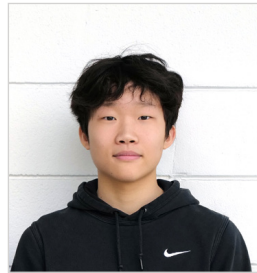
을 많이 주었다.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어릴 적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빨리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여행이기에 우리는 모두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간다.

내 마음 속의 책 전래동화

최성민

저는 어릴 때 한국에서 자라면서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전래동화’를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전래동화를 읽으며 한국에 대한 문화와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의 많은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읽은 전래동화 중에서는 특히 ‘흥부와 놀부’, ‘금도끼 은도끼’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 착한 동생 흥부와 욕심 많은 형 놀부의 삶을 보여 주었습니다. 놀부는 돈을 모두 얻기 위해 흥부를 내쫓았지만 흥부는 착한 마음으로 치료해 준 제비로 인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부가 일부러 제비를 다치게 하였을 때에는 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전래동화를 통해서 착한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면 그것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또 다른 전래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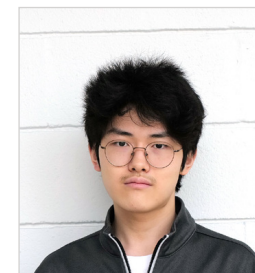


는 ‘금도끼 은도끼’였습니다. 금도끼 은도끼에서는 나무꾼이 연못에 쇠도끼를 빠뜨리고 산신령이 나와서 금도끼와 은도끼 중 어느 것이 그의 것인지 물었습니다. 나무꾼은 정직하게 둘 다 아니라고 하고 쇠도끼를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산신령이 감동하여 금도끼와 은도끼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정직하게 살면 복을 받고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선택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착한 행동을 한 인물은 결국 보상을 받고 욕심을 부린 인물은 벌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래동화에서 배운 교훈들은 어릴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에게 많은 지혜와 가르침을 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인생에서 더 신중하게 행동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배운 많은 것이 저의 성품과 성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저의 노력은 매일 반복되고 있으며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내 마음 속의 책 말모이

최호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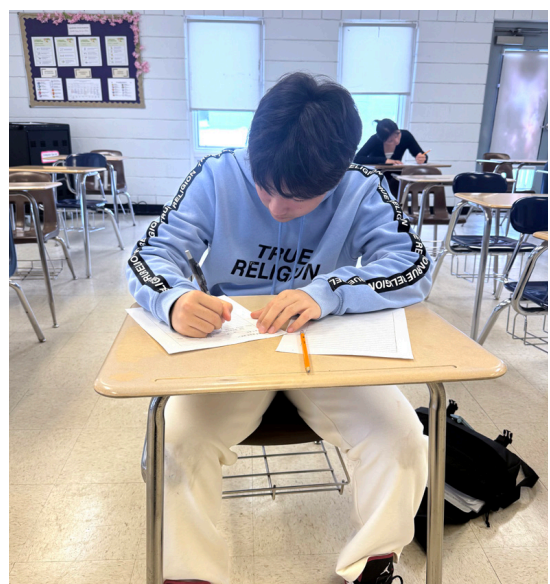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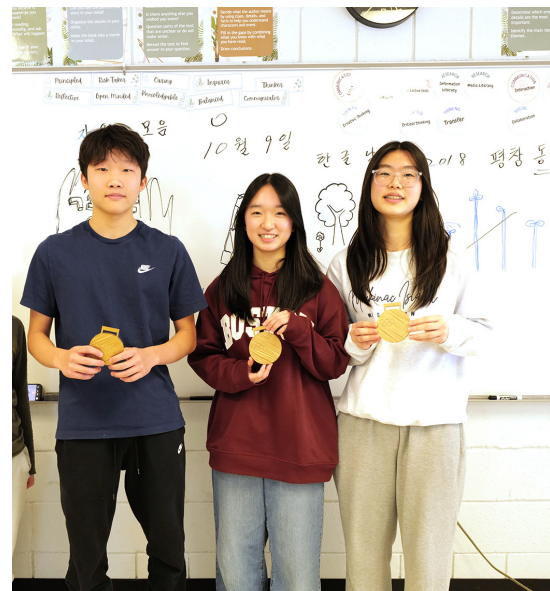
내 마음속의 영화는 『말모이』이다. 이 영화는 우리말과 우리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사람들이 한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시대였다.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우리나라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몰래 모인다. 그 과정에서 일본인들의 습격과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 그들의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 나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등장인물들의 희생과 애국심이 크게 느껴졌다.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 오로지 싸움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말을 지키는 것도 애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영화를 감사하고 한국어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이 영화를 학교 역사 시간에 보게 되었는데 너무 재미있게 보게 된 것 같아서 기뻐다.

이참에 영화를 통해 역사까지 더 배우게 된 것 같아서 뿌듯했다. 웃긴 장면도 있어서 영화를 못 본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다들 애국심을 더 기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졌다. 다른 역사 영화들도 우리나라의 성장에도움을 준 독립단체 운동가들과 많은 노력, 희생을 보여준다. 이 영화는 우리 한국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어머니가 나를 한글 학교에 보내서 한국말을 배우게 하는 것이 한국말을 까먹지 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이 영화 『말모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영화이자 내 인생 최애의 영화이기도 한 것 같다.



하늘반

교사 송미현

세종학교에서 하늘반인 11, 12학년 친구들과 함께한 올해는 참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어로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웃던 순간들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매주 교실에서 보여준 성실함과 배려, 그리고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특히 졸업을 앞둔 12학년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이 설레면서도 때로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잘 해낼 힘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각자가 품고 있는 꿈을 향해 지금보다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담대하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11학년 친구들은 이제 남은 한 해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차근차근 학교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스스로의 목표를 더 또렷하게 세워 가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 오늘의 한 걸음이 내년의 여러분을 크게 바꿔 줄 것입니다.



인생의 멘토

하늘상 윤수은

제 인생의 멘토는 저보다 여덟살 많은 나의 언니입니다. 언니는 항상 책을 사랑했고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언니는 초등학교 때부터 도서관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저는 기다리면서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언니 덕분에 문학을 사랑하게 되었고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언니는 언제나 A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고등학교 내내 세탁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자폐아 이들을 돕는 치료사로 일하며 학업과 일을 둘 다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 언니의 책임감과 성실함은 항상 저에게 자랑이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이끌어 주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언니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언니는 워싱턴 D.C.에 있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 학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그 학교에 유일한 동양인입니다. 위험한 지역이라며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며 말렸지만, 언니는 자신의 선택을 굳게 지켰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친절한 동양인 교사를 경험하면 더 넓은 시야와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과 관심이 담긴 교육이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언니에게 있었습니다.

언니를 지켜보며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배움과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언니를 본받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6학년 때부터 언니처럼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를 도우며 언니가 자폐아이들을 대할 때 보여주던 인내심과 따뜻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Math Corps 여름 캠프에서 집안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수학을 매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언니 영향으로 저는 The Debut Review 라는 웹사이트에 올릴 시를 편집하고 번역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니가 걸어온 길을 조금씩 따라가고 있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단순히 멋진 언니일뿐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알려준 가장 큰 멘토입니다.

인생의 멘토 아버지

아름다운상 하준형

멘토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에게 멘토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멘토라고 생각한다. 나도 언젠가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고, 그동안 받은 도움을 꼭 돌려드리고 싶다. 나에게 그런 멘토는 바로 아버지이다.



내가 이곳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마

공부와 친구 관계였을 것이다. 특히 영어가 잘되지 않아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고, 혼자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 속상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내 옆에서 공부를 도와주시고, 틈틈이 위로해 주셨다. 아버지는 결과보다 과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대학교 입학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원서를 쓰면서 점수를 정리하고 에세이를 작성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고민이 많았을 때 아버지는 내 이야기를 들어 주시고, 에세이에 쓸 수 있는 아이디어도 함께 생각해 주셨다. 혼자였다면 막막하고 힘들었을 텐데, 아버지는 계속 옆에서 조언자가 되어 주시며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또 어머니와 다투었을 때에도 아버지는 항상 내 이야기를 들어 주셨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말이 거칠어질 때에도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셨다. 그리고 내가 조금 진정이 되었을 때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셨다. 그 덕분에 나는 감정을 조절하는 법과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이제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라는 전혀 다른 환경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에 있다. 솔직히 걱정도 되고, 앞으로 스스로 준비하고 해내야 할 일들이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힘들 때마다 내 곁에 있어 주었던 멘토, 아버지의 존재와 그동안 해 주신 말들이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 믿는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들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인생의 멘토

고운상 김세희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자라난다. 그들은 어딘가에 있는 유명한 연예인, 음악가, 과학자, 혹은 의사를 보며 이렇게 생각한다. “저게 내가 될 사람이야.” 저게 내 인생 목적이고, 내 멘토야.”



인생의 멘토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와 조언을 건네주는, 경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누군가의 인생 멘토가 된다는 것은 큰 의미이자 영광이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그런 사람을 한번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이제 겨우 18살이고,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미래의 남편이 누구일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것도 모른다. 부모님 외에는 이끌어줄 사람도 없었고, 그들을 보다 해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할 만큼 확신을 준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나의 인생 멘토를 “가장 완전한 나 자신”으로 두기로 했다. 그것이 과거의 나이든, 미래의 나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성공, 아름다움, 혹은 삶의 목적을 쫓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다른 사람에게 맞는 길이라고 해서 나에게도 맞는

길을 필요는 없다. 인생은 복사해서 붙여 넣는 이야기책이 아니다. 흐릿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미완성인 장들로 채워진 채 스스로 써 내려가야 하는 책이다.

과거에서 배운 건,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전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사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에게 지금의 삶을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앞으로 마주할 도전에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때로는 자신의 목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라도 “최고의 나”가 되어야 할 때가 있다. 스스로 그 가치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변화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람이 성장하면, 세상도 그 변화에 맞춰 따라온다. 자기의 열정, 가치관, 그리고 삶에서 의미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다.

만약 모든 사람이 똑같은 틀 안에 맞추려 하고, 같은 유형의 사람을 따라 하려 한다면 세상은 훨씬 지루해질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 하고 우리의 상처까지 그 모든 차이가 세상을 더 흥미롭게 만들죠. 목적은 다른 사람처럼 되는 모습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솔직한 “나 자신”이 되는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인생의 멘토는 바로 “가장 나다운 나”입니다.

끝내 환하게 뜬 사나이, 나의 멘토

예쁜상 최승기

내 인생에 영향을 준 사람은 수천, 아니 수만 명에 이를 것이다. 그중에서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을 나는 ‘멘토’라고 부르기로 했다. 많은 사람들은 멘토로 간디나 테레사 수녀처럼 널리 알려진 인물을 떠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나의 멘토는 일본의 투수 야마모토(선수)이다.

그는 나에게 시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끈기를 보여준 사람이다. 그는 처음부터 타고난 재능이 돋보이는 선수는 아니었다. 구속은 140km에도 미치지 못했고, 173cm라는 작은 키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많은 스카우트들에게 혹평과 질책을 듣는 일이 잦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노력’이라는 재능이 있었다. 그는 수많은 연구와 훈련 끝에 자신만의 새로운 투구 폼을 만들어 냈고, 그 변화는 그를 마치 꽃이 활짝 피듯 성장하게 만들었다. 이후 그는 호평을 받으며 일본 프로야구 리그(NPB)에 진출했고, 마침내 큰 계약으로 MLB 무대에서 뛰게 되었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데뷔전에서 좋지 않은 투구로 초반에 강판되었고, 언론의 비판도 거셌다. 그럼에도 그는 매



일 훈련하며 자신의 평가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 팔 부상으로 한 시즌을 통째로 날리면서 크게 좌절하기도 했다. 스스로를 탓하며 괴로워했지만, 결국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MLB 최고의 투수가 되겠다”는 각오로 재활에 매진했다.

다음 시즌, 그는 완벽한 컨디션을 처음부터 보여 주지는 못했지만 시즌 내내 꾸준히 노력하며 점점 좋은 모습을 되찾았다. 그리고 중요한 경기들에서 인상적인 투구로 팀 승리에 기여했다. 특히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위기 상황을 이겨 내고, 완봉승에 가까운 경기력까지 보여 주며 큰 찬사를 받았다.

그의 이야기를 보며 나는 한 가지를 배웠다. 재능이 부족해 보이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결국 자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야마모토 선수는 내게 ‘끝내 환하게 뜬 사나이’ 같은 멘토가 되었다.

피카츄, 내 멘토

최서진

내 인생의 멘토는 피카츄이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캐릭터가 멘토가 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피카츄는 내게 ‘끈기’와



‘노력’을 상징하는 존재다. 피카츄는 포켓몬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쥐를 닮아 작고 귀엽지만 처음부터 강한 포켓몬은 아니다. 아

직 진화하지 않은 상태라 힘이 부족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피카츄는 자신이 가진 장점을 잘 살려, 더 강한 상대를 상대하며 어려움을 이겨 낸다.

예를 들어 체육관 배틀에서 피카츄는 라이츄처럼 더 강한 상대와 싸우게 된다. 라이츄는 힘이 강하지만, 피카츄는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긴 싸움 끝에 상대를 쓰러뜨린다. 이런 모습은 피카츄의 끈기를 보여 준다.

또 피카츄는 자신이 위험해질 정도로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주인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때로는 무리한 힘을 써서 쓰러질 만큼 위태로운 순간도 있지만, 그 용기와 끈기는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다. 나는 이런 장면을 보며 나도 내 장점을 잘 활용하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어려운 일도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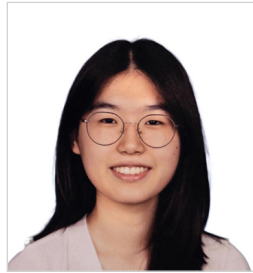
피카츄는 노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여러 여행을 하며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더 강해지기 위한 방법을 찾아 계속 성장한다. 예를 들어 Z기술처럼 강한 기술을 배운 뒤에도, 그것을 안전하게 쓰기 위해 오랫동안 연습하고 체력 훈련을 한다. 그리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결국 승리한다.

나는 포켓몬 챔피언이 된 피카츄가 부럽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카츄가 꿈을 향해 흔들림 없이 노력했다는 점이다. 비록 피카츄는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이지만, 꾸준한 노력과 끈기의 가치를 내게 알려 준 멘토이다. 앞으로 나도 공부하는 책상 앞에 피카츄 피규어를 두고,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피카츄처럼 고비를 이겨 내겠다는 마음이 짐을 다지려고 한다.

인생의 멘토

박연서

제 롤모델은 더 로즈(The Rose)라는 밴드입니다. 이 밴드는 2017년에 작은 기획사에서 데뷔했지만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메인 보컬 김우성은 한국에서 태어나 로스앤젤레스에서 자라 두 문화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은 두 언어를 모두 잘사용합니다. 그는 음악 꿈을 위해 한국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가했지만 바로 성공하지 못했고, 이후 꾸준히 연습하며 솔로 활동과 거리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함께 활동한 그룹이 지금의 더 로즈입니다.



데뷔 후에도 군 입대와 법적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성과 밴드는 계속 음악을 만들고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저는 처음 그들의 음악을 들었을 때 악기 소리와 우성의 독특한 목소리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어려움을 알게 되면서, 노래는 저에게 큰 위로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강인함과 도전 정신을 보며, 저도 관심 있는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달새반

교사 황선미



디트로이트 세종학교의 토요일 아침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모두가 늦잠을 자고 싶은 주말 아침, 배움에 대한 설렘을 안고 교실 문을 두드리는 종달새반 학생들의 모습은 저에게 늘 큰 감동과 에너지를 안겨 줍니다.

특히 올해 새로 인연을 맺은 미나와 수지, 그리고 '엄마 껌딱지' 인 어린 유나를 잠시 떼어놓고 쉽지 않은 발걸음을 해주시는 실라 씨까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주 한글을 배우기 위해 모이는 우리 반 학생들이 참으로 기특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피곤함도 잊은 채 반짝이는 눈빛으로 수업에 집중하는 그 열정은, 가르치는 저로 하여금 더 큰 책임감과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한글은 단순한 언어를 넘어 서로의 마음과 문화를 잇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글자를 만드셨듯이, 저 또한 우리 학생들이 한글을 통해 한국의 정서를 깊이 이해하고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의 토요일 아침이 앞으로도 매 순간 즐거운 발견과 따뜻한 나눔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김실라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실라입니다.
제 남편이 한국 사람이어서 더 잘 소통하고 싶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와 한국 음식을 배우는 것도 좋아합니다. 올해는 한국어를 더 잘 이해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실라입니다.
제 남편이 한국 사람이어서 더 잘 소통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와 한국 음식을 배우는 것도 좋아합니다.
올해는 한국어를 더 잘 이해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지

제 이름은 수지입니다. 가족과 대화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올해 수업은 작지만 마음에 듭니다. 이 새로운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문법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도 말하기를 더 잘하고 싶어요.

제 이름은 수지입니다. 가족과 대화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올해 수업은 작지만 마음에 듭니다. 이 새로운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문법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도 말하기를 더 잘하고 싶어요.



최미나

저는 최미나입니다. 저는 세종학교에서 3년째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반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나 여동생과 함께 있지 않아서 슬펐습니다. 나중에 교실 변화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교실 변화는 처음에 슬펐지만, 이제는 적응했습니다.

저는 최미나입니다. 저는 세종학교에서 3년째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반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나 여동생과 함께 있지 않아서 슬펐습니다.
나중에 교실 변화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교실 변화는 처음에 슬펐지만, 이제는 적응했습니다.



신입반

교사 호프 수산나

신입반 학생들에게~~
안녕하세요! 요즘 잘 지내지요? 수산나 선생님입니다.
올 학년도 빠르게 지나갔지만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올해 같이 공부하고 많이 배웠어요. 우리 신입반 덕분에 기쁘게 가르쳤어요.
어려분들이 토요일 아침마다 학교에 와서 너무 열심히 공부했고 많이 수고했어요.
우리 신입반 학생들이 많이 자랑스러워요.

여름도 조금 한국어를 연습하자!
행복한 여름 지내요. 화이팅~~~





Oh Helen

제 이름은 헬렌 이에요
 저는 멋있어요
 체기분이 좋아요
 집에 가고 싶어요
 저 머리가 검은색 이에요
 밥을 좋아해요
 샤워를 해요
 비빔밥을 먹어요
 게임을 좋아해요
 저 열두 살 이에요



Lee Chae

1. 나는 짐내스틱을 해요.
2. 나는 피아노도 해요.
3. 나는 수학 학원에 가요.
4. 사탕을 많이 좋아해요.
5. 금곡을 더 좋아해요.
6. 내 가족을 사랑해요.
7. 책을 더 좋아해요.
8. 티비를 더 많이 좋아해요.
9. 딸기 많이 좋아해요.
8. 롤러코스터를 진짜 좋아해요.

저는 글로리아 입니다.
 저는 고양이를 좋아해요.
 제 머리색은 갈색이에요.
 저는 여우를 좋아합니다.
 저는 그림그리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그림그리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비디오 게임하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밖에서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모형을 만드는 것을 좋아. 저는 동물 그림그리는 것을 좋아해요.



Gloria Gladding

1. 제 이름은 오소아 입니다.
2. 저는 2013년 12월 30일에 태어났고, 올해 13살이 됩니다.
3.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비행기 입니다.
4. 저는 수학을 좋아하고 정말 잘합니다.
5.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아이스 스케이팅 이고, 보는 것도 정말 좋아 해요.
6.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들은 고양이와 늑대 입니다.
7.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은 커피맛이에요.
8.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은 핫 치토즈 입니다.
9.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은 로블록스 입니다.
10.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파란색 입니다.



Oh Soa



Hannah Choe

- 1 나는 빵집에 갔어요
- 2 옷들은 직장에 서 봤어요
- 3 내 친구 커피숍에서 만나요
- 4 친구 생일 파티에 갔어요
- 5 친구하고 운동해요
- 6 토요일은 세종학교에 가요
- 7 엄마하고 마트에 갔어요
- 8 옷가게에서 옷을 샀어요
- 9 사점에 가서 책을 샀어요
- 10 오늘은 일 쉬어요



Abel Paton

1. 저는 커피를 마셔요.
2. 저는 빵을 먹어요.
3. 저는 세종항당에요.
4. 저는 화강실에 가요.
5. 저는 호텔에서 쉬어요.
6. 저는 헬스클럽에서 운동해요.
7. 미국 사람이예요.
8. 한국 사람이예요.
9. 저는 회사에 서일해요.
10. 저는 놀이공원에 가요.

- 1 리암씨, 지금있어요?
- 2 리암씨는 지금 뭐 해요?
- 3 미국 사람이어요.
- 4 리암씨는 대학생이어요?
- 5 리암은 한국 영화배우어요.
- 6 리암 씨는 옷을 사요.
- 7 리암씨는 사무수예가요.
- 8 리암씨는 점심을 먹어요.
- 9 학생이어요.
- 10 한국 사람이어요.



Liam Paton

1. 제 일런은 공룡을 너무 좋아해요.
2. 엄마 사랑해.
3. 제 일런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4. 무가나무 맛 없다.
5. 제 일런은 원숭이 디디예요.
6. 저는 김을 좋아해요.
7. 골프를 잘 친다.
8. 저는 친절해요.
9. 저는 강아지 좋아해요.
10. 세종학당이 재미있어.



Jalen Smith

2017년 4월에 시작해서 Zoom으로 열심히 수업하고, 온라인 동요대회, 수업 발표까지 마쳤던 2021까지.. 4년 2개월이란 시간동안 음악 교사로 일하며 정을 쌓았던 세종학교.. 2021년 여름, 개인 사정으로 너무나 섭섭하게 교사직을 내려놓았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다시 4년이 지나 올 해 이렇게 다시 음악을 맡아 정교사로 근무하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두 아이들은 계속 학교를 다녔던 덕분에, 도울 일이 있을 때마다 sub 교사로 함께 하긴 했지만, 음악 과목을 다시 맡아 토끼, 나비, 개나리, 매화, 난초, 신입, 무궁화, 장미반의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아이들과 만나게 된 첫 날엔 정말 감회가 새롭더군요.

토끼반 친구들은 내가 요만한 아이들과 수업을 했던 적이 있던가 싶게, 올 해 이상하리만치 어리게 느껴지고, 전체적으로 수업을 함께 하는 정원은 더 늘어나서 정신이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반짝거리는 눈으로 새로운 노래를 열심히 따라하는 아이들을 보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저절로 웃게 됩니다.

토끼반부터 신입반까지 여섯 개 반 아이들이 참가하는 동요대회를 준비하면서 대회에 적합하면서도 재미있을만한 다양한 동요들을 들어보고, 수준을 나눠 종류별로 선별하고, 실제 수업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불러보면서 쌓아왔던 시간들이 새삼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는 아이들이 부르기 조금 어려운 수준의 동요들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해서 대회에 참가하는 아이들과, 항상 관심과 정성으로 함께 해주시는 부모님들 덕분에 동요대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회가 끝나면 늘 뭔가 아쉽고, 내년엔 좀 더 곡 선정에 신경을 쓰리라 하는 다짐은 올 해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요. 20-21년도와 그 이전에도 여러 번, 남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했었는데, 올 해는 태권도 수업을 3교시에 함께 진행하게 되어 리코더 수업엔 무궁화, 장미반 여학생들 네 명씩 모두 여덟 명이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두 리코더를 처음 다루보는 아이들이기도 하고, 악기를 아직 접해보지 못한 친구들도 여러 명이라 악보를 읽는 게 많이 어려워 음마다 이름을 적어 보여주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짜증이 날 만도 한데, 운지도 익히고 음 이름들을 보면서 열심히 따라와주는 아이들이 참 대견합니다.

올 해는 학사 일정이 조금 빠르게 마무리 되는 관계로, 3월 초이지만 아이들은 벌써 예술제 준비에 한창입니다. 아직도 눈이 오는 추운 겨울인데, 앞으로 두 달 반 정도면 벌써 학사 일정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참 당황스럽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 학교의 날 행사와 스펠링 비나 이야기 말하기 대회 같은 행사들이 많지만, 남은 날들 동안 그간 배웠던 것들을 열심히 연습하고, 좋은 기억으로 이번 학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항상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는 부모님들께 이 글로 감사인사를 대신합니다.
“학부모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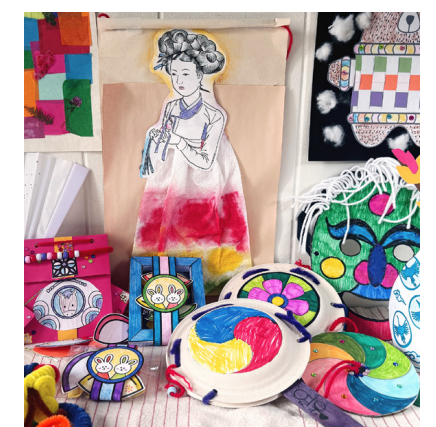


처음 세종학교 미술교사로 교실에 들어서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이들 앞에 선다는 설렘보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어른스럽게 느껴지던 하늘반 아이들, 보기만 해도 행복했던 토끼반 아이들, 그리고 한 학기에 한 번씩 짧게 만났던 여러 학년의 아이들까지, 그 모든 만남이 제게는 감사한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종학교 미술반은 한국 전통문화를 미술 활동을 통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기와 딱지, 줄팽이 만들기와 같은 전통 놀이를 시작으로 조각보, 복주머니, 하회탈, 미인도 족자, 호작도 키링, 부채와 청화백자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 미술을 함께했습니다. 또한 추석 송편 과 전통 굴비를 만들고 그리는 활동을 통해 절기와 음식 문화도 미술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더불어 추수감사절, 할로윈, 성탄절, 발렌타인 데이 등 아이들의 일상과 가까운 미국의 명절도 미술로 함께하며, 아이들의 서로 다른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한 주에 한 번, 길지 않은 수업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해 갔다고 생각합니다. 미술 수업은 결과보다 자신을 표현하고 즐기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작품을 만들어 가는 동안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고 스스로 즐기게 되는 순간들이 제게는 가장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교사로서 가르친 시간이라기보다는,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한 한 해였습니다. 아이들의 솔직한 질문과 따뜻한 표현들은 미술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첫 해라 부족함도 아쉬움도 많았지만, 그만큼 잊지 못할 순간들도 가득했습니다. 이 교실에서 나눈 시간들이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기억으로, 저에게는 오래 간직할 배움으로 남을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해 준 세종학교 학생들, 도움을 주신 각 학급의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옆에서 큰 힘이 되어준 봉사자 학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해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교사 김소현

함께 뛰고, 함께 성장한 시간 이번 학년 K-POP 댄스 수업은 저에게도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K부터 3학년까지, 두 그룹의 아이들과 함께 음악에 맞춰 웃고 뛰며 보낸 매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춤은 단순히 동작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 뒤로 숨던 아이가 어느새 무대 맨 앞에서 자신 있게 춤을 추고, 동작이 어려워 포기하려던 아이가 끝까지 해내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2-3학년 친구들의 줄넘기 챌린지는 작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도 넘지 못해 고개를 숙이던 아이들이 이제는 “선생님, 저 기록 깰어요!” 라며 눈을 반짝입니다. 매주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넘어서는 모습 속에서, 저는 아이들의 몸뿐 아니라 마음도 자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더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아이들이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 때였습니다. 새로 온 친구에게 동작을 차근차근 알려주고, 실수해도 괜찮다며 응원해 주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춤 이상의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배려와 용기,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다시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작은 성공에 온 마음으로 기뻐하는 순수함이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도 자신을 믿고, 즐거운 도전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아이들 마음속에 “나는 할 수 있다” 는 기억으로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준 우리 아이들, 그리고 늘 따뜻하게 응원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태권도

황희찬, 황희민

세종학교에서 태권도 수업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렀지만, 아이들과 함께 부딪히고 웃으며 수업을 만들어가던 시간들이 저에게도 소중한 재미가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에 함께했던 아이들과 다시 수업을 시작하며 아이들이 이미 기본기를 익힌 덕분에 수업이 훨씬 수월해졌고, 동작 하나하나에 자신감도 생겼다고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주먹 쥐는 법도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이제 동작의 순서와 의미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모습을 보며, 성장한 아이들을 보고 보람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작년에 쌓아 온 경험이 아이들에게는 태권도의 기초가 되었고, 저에게는 수업을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더 높은 수준의 수련도 시도할 수 있었고,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성장해가는 시간을 통해, 지도자로서의 보람을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건강하고 재미있는 태권도 수업을 이어가며, 더 많은 발전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물놀이/난타

교사 Torey Powers

My name is Torey, and I am the samulnori and nanta teacher at Saejong. My students learn how to play traditional Korean drums and rhythms. Even after nearly a decade of teaching at Saejong School, my students still find ways to surprise me, both with their creativity and their music.

It is an honor to teach such hardworking and caring students. Being able to see and hear the results of their effort is still rewarding as a teacher, even after all this time.



졸업을 앞두고....



김초연

저는 네 살 때부터 세종학교에 다니기 시작해, 현재까지 14년째 이곳에서 배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처음 세종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왜 제가 이곳에 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주말에 쉬는데, 저는 왜 미국 학교 외에 한국학교까지 다녀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한국 사람만 다니는 학교인지, 학교에 다닌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 학교가 제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중심에는 세종학교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후 아버지의 직장으로 인해 독일을 거쳐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제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잊게 될까 걱정하셨고, 그 마음으로 저를 매년 한국에 보내 조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세종학교에 다니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세종학교는 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미국에는 현지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모국어와 문화를 잃어버린 많은 한국 이민자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세종학교가 없었다면 그들 중 한 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어 문법과 작문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 고난, 그리고 교과서로는 쉽게 배울 수 없는 다양한 한국 문화의 모습들을 배웠습니다. 덕분에 물리적으로는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만은 늘 한국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쏟아부은 작은 시간들은 씨앗이 되어, 제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했고, 나아가 제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디트로이트 세종학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4년 동안 저를 가르쳐 주신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저와 같은 한국계 미국인 아이들이 잃어버릴 뻔했던 모국 문화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종학교에서 배운 이 소중한 가르침을 앞으로 제 삶 속에서 이어가며 살아갈 것입니다.

세종학교를 졸업하며



윤수은

세종학교에서 자라난 나

네 살, 아무것도 모른채 엄마의 손을 잡고 처음 세종학교에 왔던 그날부터 어느덧 14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왜 토요일마다 학교에 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가끔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시간이 쌓여 결국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세종학교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제가 저의 뿌리를 배우고, 저 자신을 이해하게 된 공간이었습니다. 한국 역사와 전통 문화를 배우고, 무용, 난타, 골든벨, 이야기 대회등 수많은 활동 속에서 저는 저의 정체성을 찾을수 있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한국 방송을 보며 웃고, 자막 없이 드라마를 이해하고, 가사를 보지 않고도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는 지금의 저는 세종학교 덕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친구들이 K-POP과 K-DRAMA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것도, 두 문화 사이를 오가며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이곳에서의 시간 덕분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토요일을 빼앗긴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저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교사로 활동하면서 저는 세종학교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교실에 앉아 선생님 말씀을 듣던 제가 이제는 교실 앞에서 아이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며 저는 또 다른 배움을 얻었습니다. 한글을 어려워하는 아이를 도우며, 예전에 제가 힘들어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수업 분위기를 이끌어 가기 위해 애쓰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얼마나 큰 책임과 사랑이 필요한 일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셨던 선생님들의 말씀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는지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우는 입장에서 나누는 입장으로 바뀌는 과정은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종학교는 제게 언어뿐 아니라 책임감, 인내심, 그리고 공동체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후배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이 순간 “왜 나는 매주 토요일에 여기 있어야 할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가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시간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이곳에서의 시간이 여러분의 자량이 된다는 것을.

세종학교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철없던 저를 기다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믿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들이 세종 학교에 있게 해 주신 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세종학교는 제 어린 시절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제 성장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이곳에서 보낸 14년은 제가 어디에 있든 저를 지탱해 줄 뿌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되더라도, 이 소중한 추억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생의 글

졸업을 앞두고....



하준형

안녕하세요. 저는 하준형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왔습니다. 영어도 잘못했고, 친구도 없어서 많이 어색하고 외로웠습니다. 외로울 때는 주변 나무들이나 식물들과 대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제일 잘 들어주는 친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세종학교를 재미있다고 소개해주어서 오게 되었고, 그 선택이 제 생활을 많이 바꿔 주었습니다. 물론 토요일에 또 학교를 간다는 게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왜하필 토요일이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부모님께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끝까지 다니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학교에서의 추억은 정말 많습니다.

글짓기, 이야기 대회, 도전 골든벨, 김치 만들기 체험, 사물놀이, 봉사활동, 그리고 세종제까지. 이런 다양한 경험들은 저에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지금은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세종제는 잊을 수 없습니다. 친구들과 열심히 준비하면서 장난도 많이 치고, 아이디어도 내고, 연습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무대 위에서 우스꽝스럽게 춤을 췄던 순간도 있었는데, 저희끼리는 굉장히 진지했지만 나중에 촬영한 영상을 보니 생각보다 더 엉망이더라고요. 그래도 그 시간이 정말 재미있었고, 함께 준비했던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동생들을 돕는 Assistant Teacher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동생들 앞에서 보니, 제가 예전에 몰라서 힘들어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설명해 주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생들이 이해했다는 표정으로 웃어 줄 때, 그게 정말 좋았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동생들에게 감사노트나, 사탕 선물도 많이 받았습니. 이러한 경험을 통해 책임감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직접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실수해도 기다려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설명해 주시고,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저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특히 세종제를 준비할 때나 행사를 앞두고 정신없을 때에도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뒤에서 묵묵히 도와 주셨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 덕분에 저희가 더 재밌게 생활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세종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와 사회 속에서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거나 팀 프로젝트를 하거나,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종학교에서 배운 소통하는 방법, 서로 배려하는 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종학교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를 배우는 곳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학교에서의 시간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함께한 친구들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고 즐거웠다. 같이 웃고, 같이 준비하고, 같이 성장해서 이렇게 졸업하게 되어 기쁘다. 후배 여러분, 학교생활이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 시간은 분명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세요. 나중에는 분명 “그때도 세종학교 다니길 잘했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를 위해 헌신해 주신 교장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를 믿어 주시고 응원을 주신 부모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종학교에서의 시간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친구클럽

부회장 최성민, 박재연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클럽 부회장 최성민입니다.

친구클럽에서는 세종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이 한국어 공부가 필요한 어린 친구들의 한국어 공부 및 숙제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친구클럽에서는 세종학교 숙제뿐만 아니라 한국어책도 함께 읽고 게임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친구클럽은 세종학교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클럽으로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동생과 함께 Rochester Hills 도서관에서 처음 세종학교 형, 누나들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영어가 어려웠던 저는 한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 어린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 미국에 와서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책을 읽는 것이 익숙합니다. 물론 지금은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하고, 한국어로 글 쓰기는 자신이 없지만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니 매주 금요일마다 시간을 내어 도서관에 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제가 자신 있는 한국어로 봉사를 할 수 있어서 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종학교에서만 아니라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싶거나 봉사를 하고 싶은 8학년 이상의 중고등학생들도 더 많이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학년도에는 많은 봉사학생과 어린 친구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클럽 부회장 박재연입니다.

친구 클럽은 어린 아이들에게 학교 공부를 도와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세종학교를 벌써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같은 내용을 배운 기억이 있는 어린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할 때 질문을 더 쉽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숙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학습 습관을 개선하고 학습을 더 재미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린 학생이 아니라도, 친구 클럽은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원봉사는 리더십, 책임감 및 기타 이점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 또한 다른 고등학교 프로그램과 대학 지원에도 도움이 됩니다.

* 대상 : 세종학교 재학중인 토끼반 ~ 솔반 학생들

* 시간 : 세종학교 수업이 있는 주 금요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Rochester Hills Public Library (500 Olde Towne Rd, Rochester, MI 48307)

* 2026-27학년도 친구클럽 첫 모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개학 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K-Rise

회장 장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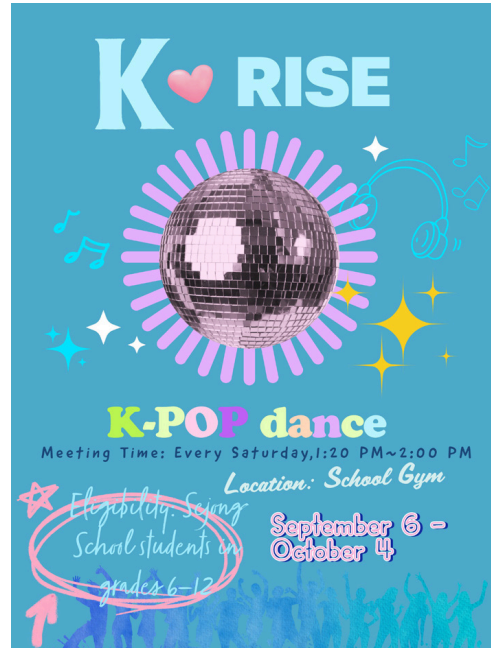
저는 올해 K-pop 댄스 동아리 K-Rise의 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처음 회장을 맡았을 때는 설렘도 컸지만, 동시에 잘 이끌 수 있을까 하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단순히 춤을 추는 것을 넘어, 함께 노력하고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K-Rise는 K-pop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모인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곡을 정할 때마다 멤버들과 함께 여러 노래를 들어보고, 춤 연습 영상을 보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안무를 선택할지, 어떤 분위기로 무대를 만들지 정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조율해 나갔습니다. 연습 시간에는 다들 바쁘고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함께 맞춰가며 조금씩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가끔은 박자나 동작이 잘 맞지 않거나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멤버들이 서로 도와주고 응원해 주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노력한 덕분에 공연 무대에서 멋진 결과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무대를 마친 후에는 큰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공연 준비 과정에서 의상을 고르고, 무대 구성을 고민하는 일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작은 부분 하나까지 함께 고민하며 우리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저에게 큰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K-Rise에서 보낸 1년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순히 춤을 배우는 시간을 넘어서, 협력의 중요성과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대화와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돌이켜보면 힘들었던 순간들도 모두 성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땀 흘리며 연습하던 날들, 무대에서의 짧은 순간, 그리고 멤버들과 함께 웃고 울던 시간이 모여 제게 큰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도전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비즈공예 클럽

회장 장아윤

올해 저는 한국어학교 비즈 공예 클럽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말 즐거운 1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막상 시작해 보니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비즈 공예 클럽은 말 그대로 다양한 재료로 액세서리와 공예품을 만드는 동아리이지만, 사실은 수다도 떨고 서로 도와가며 웃는 시간이 더 많은 공간이었습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고민하다가 갑자기 전혀 다른 조합이 나오기도 하고, 실이 꼬여서 매듭을 다시 풀며 다 같이 웃었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서로의 아이디어를 보며 영감을 얻고, 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는 과정도 즐거웠습니다.



가끔은 재료가 부족하거나 생각한 대로 작품이 완성되지 않아 “어떡하지?” 하고 고민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다 같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누군가는 조용히 옆에서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팀워크도 생겼습니다. 또, 서로의 작품을 보며 칭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신감도 조금씩 생겼습니다. 특히 우리가 만든 비즈 공예 작품을 학교 행사에서 판매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친구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사람들이 예쁘다고 해주었을 때 정말 뿌듯했고, 판매 수익의 절반을 학교에 기부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시작한 활동이 학교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정말 기쁩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누며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큰 배움이었습니다.

이 1년 동안 저는 완벽한 리더라기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회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책임감도 조금 더 생겼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즈 공예를 하면서 보낸 웃음 가득한 시간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즐거운 경험을 또 해 보고 싶고, 더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보며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도 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며 더 창의적인 활동을 기획하고, 서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제30회 세종 동요 부르기 대회

- 대상: 이로운(매화반)
- 금상: 박이든(개나리반), 최해나(난초반)
- 은상: 권나연, 김인아(개나리반), 김희영(매화반)
- 동상: 오연아, 김혜빈(나비반), 김용빈(개나리반), 오연수, 황윤아(난초반)
- 장려상: 김제인(나비반), 하연, 길유안, 김태성(개나리반), 김연우, 백하준(매화반), 신윤아(난초반)
- 노력상: 김재이, 김하은, 김도윤, 김동준, 심이름, 지수웁, 최을, 홍은택, 최아린, 김혜리(토끼반)
최유진, 김단우, 김주빈, 윤새별, 강이엘, 이지유, 김시아, 이소윤, 예훈, 손하은, 이하준, 최세린(나비반)
김리하, 정태오, 이온유, 황윤호, 김라운, 홍현택(개나리반)
이민혁, 이선, 박노아, 김하은, 김무진, 손윤재(매화반)
맹주은, 임리엘(난초반)

제34회 세종 글짓기 대회

- 세종 대상: 윤수은(하늘반)
- 무궁화상: 백하린, 장미상: 최혜서, 해상: 최성우, 솔상: 이래나, 달상: 이라엘, 별상: 이연서, 하늘상: 최준형
- 예쁜상: 김려준(무궁화반), 박태양, 손하준(장미반), 김지후(해반), 이진(솔반), 박재연(별반)
- 고운상: 길이안(무궁화반), 박수빈(장미반), 유가현(해반), 오은수(솔반), 박나연(별반), 최승기(하늘반)
- 아름다운상: 이민음(무궁화반), 김려환(장미반), 조수민(해반), 최서윤(솔반), 김연서(달반), 오하은(별반), 김세희(하늘반)

제6회 세종 스펠링 비

- 조수민(해반), 최성우(해반), 손하준(장미반), 백하린(무궁화반)

제19회 세종 골든벨

- 난초반: 구하린 • 무궁화반: 이민음 • 장미반: 김려환 • 해반: 최성우
- 솔반: 송석연 • 달반: 양지훈 • 별반: 이연서 • 하늘반: 최승기



2026 세종 이야기대회

- 세종대상: 오은수(솔반)
- 유년부 금상: 이로운(매화반) • 유년부 은상: 김제인(나비반)
- 유년부 동상: 김태성(개나리반) • 유년부 장려상: 백하준(매화반)
- 초등부 금상: 최혜서(장미반) • 초등부 은상: 백하린(무궁화반)
- 노력상: 김아린, 김하은, 임리안(토끼반), 손하은, 윤새별(나비반)
박이든, 김라운(개나리반), 최해나, 김해나, 오연수(난초반)
조수민(해반) 박연서(하늘반)



